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목재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8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장아함경)

법회 안내

국군중앙법당 (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사방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안등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일요법회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금선사 (02)981-80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원정사 (02)737-023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가족법회 매월 둘째 일 낮12시
학생법회 매월 둘째 일 낮12시

대구한마음선원(053)426-2779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5시
청년부법회 수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목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금 오전10시30분

삼척 삼장사 (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8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이리 관음사(0653)54-157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제주 죽림정사(064)56-134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 매주 화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8면

불교 신용협동조합 확산

현재 전국 12곳 개설…수익금 불사 지원

금융·유통·문화강좌등 불자 편의 제공

조계종 7월 설립…본·말사 확대 계획도

서민 금융기관으로 각광 받고있는 신용협동조합이 불교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설송)는 금년초 불교신협 설립 신청서를 서울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 제출,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오는 7월경 설립되는 '조계종 불교신협'은 조계사 신도, 신행단체, 불교용품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계 최대규모의 신협으로 수·여신업무 뿐 아니라 구판,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수익금으로 불교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계종은 사업 성과에 따라 신협설립을 지역의 본·말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앞서 제주 태고종 종무원도 지역불교 경제자립을 위해 지난 9일 '아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성민)'을 개설했다.

현재 불교계는 83년 광주 관음사 신협을 시작으로 서울 청주 광주에 각각 2개씩, 부산 대구 속초 원주 전주 제주에 1개씩 12개의 불교신협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불교신협은 고유의 금융업무이외에 사찰특산물판매, 시설물 개방, 문화강좌 개설등의 권익을 제공하고 있어 불자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신협은 조합원들의 경제자립과 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비영리 단체로 지역문화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새로운 포교방편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불교신협의 자산금이 1백억원 미만이어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용화사 주지 양업스님은 "지난해 중창불사를 진행하던중 은행대출이 어려워 불사가 힘들었으나 부산불교신협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사를 마치게 되었다"며 "불자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불교신협이 지역마다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 '불교신협동조합'은 종단과 지역의 불교연합체를 주축으로 계속 설립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는 매년 10여개의 사찰과 불교관련단체가 신협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관계자들은 "신협설립에 앞서 조직정비와 공동유대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며 법인화된 단체가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3백여명 이상의 잠재조합원을 확보했을 때 설립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대출한도를 늘이고 지역조합가입금지 규정을 없애는 등 신협 활성을 유도하고 있어 불교계의 신협설립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엽 기자)



대장경판 머리에 이고 "心출가"

불교도 경건주간(8일 출가절과 15일 열반절)을 맞이 전국의 불자들은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출가절 기념법회후 신도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 도량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올리는 모습.

(박재완 기자)

"정관개정, 재산뺏기 · 법인해체 아니다

문제해결시 특별교구로 지정, 종회 참석허용"

선학원 특위 위원장 법등스님 기자간담회

조계종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은 지난 6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선학원에 요구한 정관5개항 개정요구가 거부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학원이 세속적인 법논리와 조계종의 절차와 관행을 이유로 대화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위에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을 직접 만나 조계종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3월내 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관 5개항 개정요구가 무리하다면 양측의 대화로써 선별수용도 가능함을 비친 법등스님은 "조계종의 선학원 정관 일부개정요구는 '재산뺏기'나 '법인 해체'등이 아니라 조계종의 관장하 임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일뿐"이라 단언했다.조계종은 종헌 제94조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 제 6,7조에 의거 사설사암의 창건주나 그 권리인에게 자치상승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또한 선학원 문제가 양측의 적극적 의지로 원만 해결됐을때 조계종의 '특별교구'로서 지정, 그에 상응하는 권리지분과 종회 참여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학원소속 조계종 사찰이 약 3백여개로 추산된다고 밝힌 법등스님은 "조계종에 소속된 선학원 스님들의 현황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향후 종법에 법인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佛放사태' 대책위 구성

총무원,문책 요구…BBS 사과 방송

불교방송이 지난달 24일 "무명을 밝히고"프로를 통해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에 경고한다'제하의 불교방송 PD협의 성명서를 방송한데 대한 교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명진)는 '불교방송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분과위는 지난 6일 오후 4시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 대책소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명진스님을 위원에 진관, 각현, 여연, 지만스님을 위촉했다. 이에따라 소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이 방송한 PD협회의 성명서 제작 경위와 배경, 신문창간설과 관련한 교계여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강경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불교방송 사태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10일 오후 2시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등 이사로 참여중인 조계종 스님과 책임(BBS 포교위원장) 종훈(기획심의실장)스님등을 출석시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총무원에서도 PD 성명의 내용은 '상보비방 및 방송의 공공성 외면'이라고 지적, 관계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4일 불교방송측에 전달했다. 이와관련 불교방송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명서 관련 직원의 진술을 들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조치등에 따라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국불교운동연합, 석림동문회, 부천 석왕사신도연합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4면>

한편 불교방송 PD협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 '무명을 밝히고'시간을 통해 지난달 24일의 성명서 방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목어

"별로 볼 사람도 없는데 관히 오늘 오후 일만 축냈군."

불교텔레비전 개국특집 프로그램 녹화현장에서 어느 출연자가 한 말이다. 방송사에 대한 푸념이 아니다. 시청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케이블TV 개국을 예정대로 밀어붙인 종합유선방송 관장부서인 공보처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3월1일 21개의 케이블TV가 일제히 본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컴퓨터보급과 케이블 인입선 설치가 제대로 안돼 전국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가구는 2만1천여 가구뿐이라고 한다.

케이블TV들은 총력을 다해 다양한 개국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을텐데 시청자가 극소수라니 이 얼마나 맥빠지는 일인가. 또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

「프로그램 공급사들은 많은 비용을 투입해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 겨자먹기로 시청자도 없는 가운데 방송해 버림으로써 막대한 제작비와 광고비 손실을 입고 있다…정부의 명정관행이 결국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양산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식의 정부벌내기 행태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의 부리한 출발을 지적한 어느 일간지 사설의 한 구절이다.

"지금 접수해도 1~2개월은 기다려야 시청할 수 있다는 군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왜 개국을 강요했을까요."

안방부처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불자들의 이말은 바로 국민의 소리다. 공보처는 한마디 대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공보처가 들어야 할 말

지방 주재기자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전국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보다 빠르고 폭넓게 전하기 위하여 지방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다음의 대상 주소지에서 2년이상 거주 35세미만의 불심 돈독한 대졸 남·녀 (경력자 우대)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2백자 원고지 5매이내)
◇선발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마감 : 1995년 3월 20일
◇보내실곳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열린마당

교양대학 활성화

사 설

제도적 지도관리 필요

인간을 인간답게 가꾸려는 제도의 하나가 교육일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질서를 일깨우고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충시킬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험한 사실을 교육이란 제도를 통해 후손에게 면면히 계승한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돕는 일' 혹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려는 작용' 등이라 한다.

불교계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교양대학이란 사회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의 일이다. 불교교육이 대중화되지 않는다면 불교의 종교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최초의 교양대학인 대원불교대학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에게 왕복차비까지 주었다는 당시 관계자들의 말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80년대 후반기가 되면 1백여 불교교양대학이 합거하게 되었다. 70년대의 고도 성장기간을 통해 물질적 안정기반을 획득한 신도들이 도시 생활에서 오는 자아 상실감을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교양대학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에 시속말로 장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게 되었다.

불교교양대학이 늘어남으로써 불교가 대중화 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불교에 대한 신도들의 의식이 고양됨으로써 비판기능이 강화되었고 교계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 비례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첫째는 교양불교대학이 난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한 몇몇 전통있는 불교교양대학이 입학생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 둘째는 무자격 포교사의 남발이다. 심지어 포교사 자격을 역학인이나 무속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학제와 교과목의 불일치 내지 무자격 교수진의 횡행이다. 6일에서 2년까지 다양한 학제와 교과목, 그리고 교수진의 다양화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요인이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불교교양대학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사찰마다 행하는 신도교육차원의 교양대학은 적극 장려하되 전문포교사 양성의 교양대학은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학제와 교과목,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교수진 확보, 그리고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포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선발된 포교사는 단순한 종단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종단의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수행승들이 할 수 없는 국내외의 대사회 활동에 매진케 하여 포교사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고, 나아가 불국정토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불교교양대학이 될 수 있도록 범종단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교과과정 개발등 질적향상 필요
상호 정보교환 통해 인재양성을

강건기 교수



불사중에서 가장 큰 불사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80년대 들어서 재가신도들 사이에 알고 행하자는 새로운 신행움직임이 일었고, 이에 대한 부응으로 불교교양대학이 개설되었다.

교양대학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재가신도와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특히 여성 위주의 사찰행사에 거부감을 느끼던 거사들이 교양대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법을 접하고 신심을 내는 것을 볼 때마다 교양대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불교를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다른지역, 사찰에서 운영하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교양대학 개설 붐이 일고 있어 부작용이 염려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수진 부족, 교과 과정과 내용의 부실, 자질없는 포교사 양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 불교 교양대학은 제2의 탄생을 시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행을 밑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을 이용한 수련회, 사찰참배 등의 특강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양대학간의 유대강화이다. 정보교환은 물론 부족한 교수진, 교과과정개선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덧붙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도에 한개이상의 정식인가를 받은 불교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불교도들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전북불교대 학장〉

학사관리·신행교육 소홀등 개선
교계차원 법사고시 실시 검토도

홍성복 처장



최근에 불교교양대학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어 줄잡아 전국적으로 1백개가 넘는다. 이는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알고 믿자'는 불자들의 자각이 배경에 깔려있으므로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첫째, 학사관리가 허술하다. 대부분 입학시험은 물론 졸업논문제도가 없다. 글자 그대로 '교양대학'인데 학사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허술한 교육을 시키고도 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사 자격만은 교계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종합시험을 실시하여, 설령 몇번씩 재수를 시키더라도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신행(信行) 교육이 소홀하다. 많은 학교가 장엄도 되어 있지 않은 빌딩 사무실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신심이 생기기 어렵다. 종교는 지식보다 신앙이 한층 중요하다. 특히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므로 지식 위주의 교육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위가 빠진 꼴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에 반드시 신행과목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사찰을 수행도량으로 삼아, 신심과 수행이 중시되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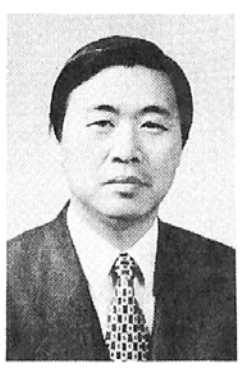
셋째, 포교사들의 법계가 시급하다. 어느 교양대학은 4년제인데 비해 3개월·6개월·1년과정 교양대학이 많다. 그런데도 똑같은 법사의 자격을 부여하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신력있는 기관이 교육의 질과 법사고시 등을 통하여 법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시 론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

패권주의 부활움직임 주시하자



정 천 구
〈인천대교수·정치학〉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문화축제를 갖고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전국의 여러 명산에 일제가 박아 놓았다는 쇠말뚝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철거방침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600년 정기가 서린 경복궁 한 가운데 일제가 가로질러 세워놓은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두고 민족정기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물들의 철거만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악몽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광복 50년을 맞는 우리의 처지와 일본의 움직임이 구한말의 국내외 정세를 연상케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고 서구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국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내는 수구와 개화, 친일(親日)과 친청(親淸), 친로(親露)로 나뉘어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벌여 국력을 약화시켰고 결국에는 신흥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2차대전 종결로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지난 50년간 우리는 분단의 비운과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분단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적인 남북대결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꾸준히 세계 대국으로서의 길을 걸어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군림하려던 2차대전 이전의 꿈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민족정기 회복 운동

일본은 오늘날 전세계 부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5%를 점하고 있는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다. 냉전시대 일본은 2차대전후 연합국이 강요했던 평화헌법하에 경제대국으로서 자신을 제한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경제력에 알맞는 정치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그리고 캄보디아 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FKO)에 참가한다는 명분을 얻어 실질적인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2차대전 당시의 전승국에 이어 일본(아마도 독일과 함께)이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게 되면 일본은 패전국의 위치를 공식으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정치력을 얻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미 일본이 자위대는 일본열도를 방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정규군대로 성장하였다. 최근 반핵단체인 그린피스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럽에서 일본까지 긴 항로를 거쳐 플루토늄을 운반해 오곤 했다.

反日보다 克日 필요

이제 일본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으며, 유사시 결정만 하면 수개월 또는 수주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조건들에 더하여 일본의 변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 일본에서 제국주의, 침략주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국회는 근자에 일제 침략을 반성하고 일본의 평화지향적 자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전(不戰)결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익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까지 만들어 2차대전 전몰자 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現) 무라야마 연정(聯政)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은 일제침략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는 것이 자민당의 정책이 아니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일본이 이미 확보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치, 군사 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다 제국주의적 야욕마저 되살아나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이 변하고 있으니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한다.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한국내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중요하고, 일본을 규탄하면서 일본에게 보다 강도 높은 사죄를 요구하는 일도 계속해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광복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처하는 중심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일제잔재 청산과 사죄가 일본에서의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심전략은 반일(反日)보다는 극일(克日)이어야 한다.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조용히, 그러나 바르게 키워가는 극일(克日)의 노력이야 말로 일본을 우리의 선린, 우방국으로 유지하는 확실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평화적 국제외교를 강화하여 일본이 평화적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국가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만평



박 구 원

귀가 열리는…

소각기의 대중화 시대 선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형이동식 간편소각로 개발성공"

소각기의 작동원리 및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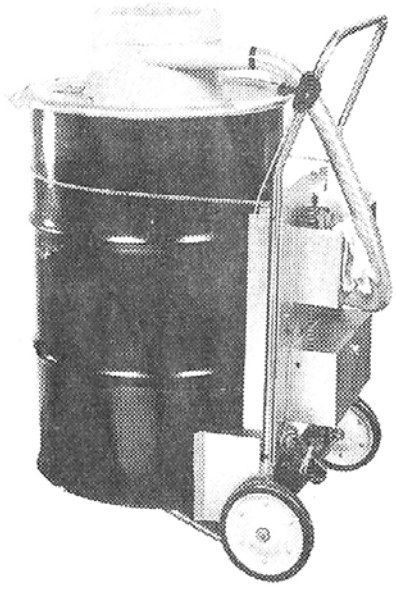
본 'CAN-소각기'는 연소드럼, 집진커버, 송풍기가 부착된 수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소드럼에 소각물을 투입한 후, 집진커버를 밴드클램프로 고정시키고 김시공을 통해 수동 점화시킨다.
② 점화후 송풍기를 작동시키면, 원형의 연소드럼 벽을 따라 공기가 주입되어 고속의 와류를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발생분진을 연소드럼의 중앙부로 회전상승 시킨다.
③ 발생매연은 집진커버를 통과하면서 싸이클론식 원심분리력에 의해 연소드럼 내에 계속 잔류하며, 이때 유독성가스의 열분해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④ 소각이 완료되면 5~10분간 냉각시킨 후, 소각물을 재투입하여 몇 차례 반복소각이 가능하며 잔여재는 적당량이 쌓이면 제거한다.

소각기 사양

- 처리용량 : 15 ~ 18kg/hr
- 총 중 량 : 52kg (드럼 34kg 포함)
- 본 체 : Drum ø570×870H [㎜]
  용적 0.22M³ / 재질 SS41
- 집진커버 : ø600×200H [㎜] (SUS 304)
- 송 풍 기 : AXIAL VANE TYPE
  19,000RPM×0.25HP×2sets 2.87³ / MIN

사찰, 포교당, 은행, 학교, 병원, 가정용 등



CAN-소각기
미국특허 No. 3791319호
실용신안출원중 No. 16352호

- 미국의 CROSSINBOW INC.에 의해 개발
- EPA(미국환경보호국)에 의해 공인
- "CAN-소각기"는 독창적인 유체역학격 설계
- 각종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간편소각기'입니다.
- 가정용 전원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료를 일절 사용치 않으므로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

소각시 주의사항

- 수분이 많은 것은 건조 후 소각하십시오.
- 연소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연소시 드럼본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 소각 후 약 10분 후에 개폐하십시오.

"연세대 보건과학 연구소에서 성능 입증"

대상 폐기물(100%)별 배기가스 성분의 평균농도

폐기물종류 / 측정대상물	종이	폐섬유	플라스틱 필름	고무	사무실 쓰레기	기름 걸레	기준치
평균NOx농도	37	160	52	176	100	180	200(ppm)
평균SOx농도	79	250	15	119	20	76	300(ppm)
평균CO농도	400	350	*100	550	250	58	600(ppm)
평균O₂농도	17.0	12.0	17.0	7.0	13.0	10.4	(%)
평균CO₂농도	3.0	7.5	3.2	13.2	6.9	10.2	(%)
분진농도	91.0	80.1	67.5	41.1	36.9	91.0	100mg/sm³
탁 도	0-1	0	0	*1-3	0-1	0-1	2도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십시오.
- CO, SO₂ 및 분진농도는 O₂ 12%일 때의 기준임.
- 감중율(잔여재/초기폐기물량)은 3~5%
- 이 성능시험은 1995년 2월 2일 '연세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함.

南陽 통산부 생산기술원 TBI사업 지원업체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07-22
☎ 679-2799 675-5805

부처님의 지구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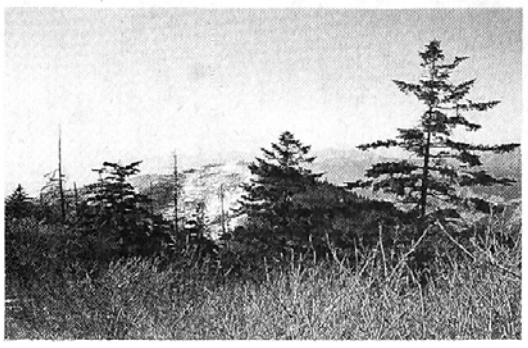
전 재 성 ⑧

토양의 산성화

부처님께서는 상응아함의 '사람'이란 경에서 신체의 땅의 일부인 유골이 어떻게 자연의 땅과 더불어 유전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한 사람이 한 겁의 시대를 유전하며 윤회하는 동안 그 유골의 뼈 다귀 유골이 쌓인 유골더미는 만약에 그것을 함께 모아서 모은 것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베팔라산처럼 크게 될 것이다" 중생이 수많은 겁을 윤회하면서 일찌기 자신의 신체가 아니었던 땅은 없었다고 말해도 좋다.

이러한 땅에 산성비를 내려 토양을 산성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체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땅은 우리자신의 억겁의 윤회동안 겪은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함축하고 있는 신성한 자연이다. 땅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토양의 산성화는 이러한 신성한 자연에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편리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구 사용하는 기름, 석탄, 가스등의 화석연료가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그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황이나 산화질소, 기타 각종 중금속등의 공해요인을



◇화석연료는 산성비를 유발 산림과 토양의 오염 원인이 된다.

서독, 삼림 55% 이미 병들어
50년 계속되면 식량도 기근

방출하는데, 이것이 비와 안개나 눈, 서리, 이슬등과 만나면, 산성비나 산성안개, 눈, 서리, 이슬이 되어 땅위에 내린다. 그것들은 땅속의 알카리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산성화하면서 많은 비료성분을 유실시킨다. 이때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도 이러한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시킨다.

뿐만아니라 산성화의 진행과정에서 땅속의 알미늄, 동, 카드뮴, 아연, 납등과 같은 중금속을 양이온상태로 용출시킨다.

이들 용출된 알미늄 이온등은 곰팡이, 세균을 비롯한 미시적 지하생태계에 아주 유해한 해악을 끼친다.

땅, 물, 불, 바람과 생명현상으로 구성된 땅의 생태계도 그로인해 파괴된다. 자신의 한가닥의 잔뿌리의 생존에도 10억미생물과 공존하던 지상의 거시적 식물들의 생태계도 결국 죽고마는 것이다.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사실은 앞에 살펴보았듯이 땅의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시적 지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지상의 생태계도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 식물에 흡수된 중금속은 다시 인체에 흡수되어 암등의 심각한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만약에 땅의 중금속 오염도가 지금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세계는 50년 안에 먹을만한 식량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는 직접적으로 숲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동독과 체코사이의 에르츠산지는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으나 80년에 이미 수십Km에 걸쳐 황무지가 되었다. 유럽에서 산성비및 토양산성화에 따라 숲의 파괴로 동독 86% 체코 71% 서독은 전삼림 55%가 죽어가고 있다. 88년 보고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산성비의 피해를 입기 시작한 유럽 5,000만ha의 삼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의 3대 강산성비의 지역으로 이에 따라 토양의 산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성비에 약한 소나무들은 지금 도시와 심산유곡에서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올해 2월 한국일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실시한 우리나라 6대도시의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뉴욕, 시카고, 도오쿄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대기오염의 심각도를 알수 있으며, 그것은 곧바로 대류현상에 의한 전국토의 산성비와 토양의 산성화로 연결되는 치수이므로, 그것만으로 미루어도 우리나라의 토양의 산성화의 진행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서울 구룡사를 원찰로 신행생활하고 있는 김정숙(43) 보살은 요즈음 불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일부터 구룡사에서 진행된 '출가에서 열반까지, 참회정진 사경법회'에 참여,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전에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한자 한자 사경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청하고 백팔참회를 통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죄업을 짓지 않기는 어렵다. 문제는 잘 지었는지' 대중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다. 불자들이 하루 밤, 하루 낮동안 지켜야 할 계율을 잘지켰는지 육재일(8,14,15,23,29,30)에 계를 잘 지켰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살이라 할 수 있다.

광명선원 초격스님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포살일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전에 바치고 자신의 원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한다.

자자는 스님들이 안거를 끝내는 마지막날 함께

금주의 주제

참회하기

청정심 회복하는 영약

허물 숨김없이 드러내고 꾸중 청해야

못을 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 하려는 데 있다. 특히 청정한 계행도 중요하지만 파계했다 해도 바로 파계의 원인을 반성하고 다시 계를 지키겠다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잘못은 물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부처님전에 고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불교에는 참회의식으로 포살과 자자가 있다. 포살은 보름과 그믐에 대중이 한곳에 모여 계경(戒經)조목을 들어가면서 '잘 지었는지 못 공부하던 대중들이 모여 서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동안에 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꾸중들기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포살과 자자에는 부처님도 스스로 참여하여 대중들에게 허물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참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용서를 청하는 겸허한 태도다. 남이 강제로 시킨다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라는 거울에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참된 자신으로 되돌아 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지난 5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가진 '깨달음의 사회화' 모금에 불자들의 정성이 줄을 이었다.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 '밀물'

전국불자 동참… 두달만에 1억5천만원

지난 1월 8일 부처님 성도절을 기해 시작된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모금이 2개월만인 현재 총 1억5천여만원이 넘는 등 전국적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2천만원을 쾌척함으로써 시작된 모금운동은 조계사 금산사 화엄사 동화사 등 교구본사 뿐아니라 도선사 강남 구룡사 인천사암연합회 부산 내원정사 낙산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스님들을 비롯 고사리손에서부터 칠순 할머니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일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에서는 월주 총무원장스님, 정락 포교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모금 법회가 열려 즉석에서 2천1만8천6백40원이라는 성금이 모여 화제가 되었다.

성금모금은 연말까지 계속되는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본부는 어려운 이웃, 인권, 환경, 사회봉사 등과 남북통일사업등 국내의 각종 사회사업과 베트남 승려, 르완다난민돕기 등 국제 구제사업에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지난 2월 지진피해가 큰 일본 고베지역민에 위로 성금으로 1천만원이 전해졌다.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용주사	2백8십7만5천원
▲쌍계사	3십1만5천원
▲안양 한마음선원	2천1만8천640원
▲직지사	4십만6천원
▲부산 내원정사	1백만원

〈2월 28일~3월 6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신행수첩

설법은 이렇게 하세요

녹수청산서 실기교육

병든이에게 약을 지어주는 것과같이 부처님께서는 듣는 이의 근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시어 항상 우리 중생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방편법문을 되새기며 수행과 포교가 하나됨을 엮어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설법연구원(원장 시몽스님)은 오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녹수청산에서 주3회 설법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스님과 불교교양대학 이상을 이수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습위주의 설법기법 향상을 도모하게 될 이번 교육은 현장포교를 대비한 알찬 실습의 장이 될 것이다. (02)720-0824.

화사한 봄 망월사로

광명선원 도봉산 산행

화사한 봄은 꽃비내리는 화엄이다. 어김없이 봄은 화려한 형형색색의 멋과 향기를 머금으며 우리곁으로 다가왔다.

봄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산행은 생각만해도 즐거움이 앞선다.

일심으로 마음 밝히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광명선원 거사림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봉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전철 1호선 의정부행 망월사역 출구에서 출발하여 망월사까지 등산하는 이번 산행에 불자가족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C2)584-1108.

시심은 삶을 색칠하고

불교문학 유적순례

낙엽만 굴러도 까르르 웃음을 참지 못하던 시절, 파란 하늘 한가운데에 정성껏 자신의 모습을 그리던 학창시절을 되돌아 보면 어느덧 마음은 예쁜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학생이 된다.

불교문학 포교원 주부 문학회(회장 허정숙)가 이렇게 꿈많던 여학교 시절의 솜씨도 뽐낼겸 불교포교 대중화를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불교문학 유적순례'를 떠난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수행처인 심우장과 수유리 공초 오상순 시비에서 느껴지는 기개와 시심(詩心)이 한폭의 그림처럼 시어(詩語)로 쏟아질 것이다.

빨래하는 속에도, 설겆이 도중에도, 모든 일상을 시처럼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는 바로 자기자신일 것이다. 자신의 삶을 시로 채우며 색칠해 보자.

(02) 308-9520

혜능스님의 마음법문

봉은사 육조단경 강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봉은사(주지 무상)는 수많은 경전 중 선가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육조단경(六祖壇經)〉을 강의한다.

혜남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강의로 3월17일부터 4개월(매주 금, 오전10시)동안 진행되는 '봉은 경전학교'는 중국 선종의 사상사적 원천이자 보고인 〈육조단경〉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육조단경〉에 나타난 가장 주된 사상은 심지법문(心地法門)이다. 여기에는 무상(無相) 무념(無念) 무주(無住)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조사어록을 경(經)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 버금가기 때문이 아니라, 법문의 의미로서 쓰인 것이라 한다.

(02)511-6070.

영어로 전하는 불법

정안정사, 스님위한 강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마음의 전법이라 빨리어든 중국어든 그 어떤 언어로 표현된다하더라도 마음의 눈으로 대한다면 언제나 여여한 하나의 진리일 따름이다.

'Let's talk in English'(영어로 이야기 합시다)

영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전하며 국제화시대의 포교를 준비코자하는 스님들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

해인사 백련암 서울분원인 정안정사에서는 스님들만을 위한 영어회화 강의를 실시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강좌는 아직 회화가 가능하지 않아도 영어에 흥미가 있고 배우고자하는 정열을 지닌 스님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02)503-8088.

생활고민 풀어줍니다

법왕사 무료상담

바쁜 일과속에서도 불구하고 돈독한 신심으로 불자가족을 위한 각종 무료생활상담의 자리가 마련돼 주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비슬산 법왕사(회주 정무스님)는 불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법률, 세무회계상담을 3월부터 연중행사로 실시한다.

불자들의 생활고민과 불교교리등의 신앙상담은 정무스님(053-766-9088), 부동산-궁전공인중개사(주간 053-755-3250), 법률-배종호변호사(053-742-7000), 세무회계-사공관세무사(053-751-3324)가 맡고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⑳

협찬 (주)성풍산업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우리는 가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쓴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불 같이 일었던 화도 가라앉게 되고, 사무치던 그리움도 조금은 시들해진다.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번민도 그럭저럭 견딜 만 해진다. 한편으로는 내성이 생긴 것이고 한편으로는 체념하게 되거나 감정이 바래진 것이다.

'좀더 냉각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약방문이 제법 유효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다.

그러나 실은 「시간이 약」은 아니다. 그 말의 뜻은 다름아닌 '시간을 벌고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우리들 의식작용의 속성을 꼬집은 것이다.

요는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이다.

가령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왔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그래,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그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채찍을 든 것뿐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구태여 시간에 기댈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생각 돌려 보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의식세계란 따지고 보면 서푼어치도 안되는 지식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 번 받아들인 지식은 좀체로 수정하지 않으려는 고집까지 부린다. 그걸 고정관념이라 한다. 고정관념은 또 반드시 아집·아만을 동반한다. 그러다보니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량분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참지혜의 길을 제시하셨다. 욕심·성냄·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고, 그런 삼독심과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해탈에 이른다 하셨다.

관념이란 실은 실체가 없는 허공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관념의 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기도 하여, 그 관념에 걸려서 스스로를 넘어뜨린다. 우리들은 허공에 갇힌 사람,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 셈이다. 한 생각 돌려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은 불법 속에 있다.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국내 최고!!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분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553-2441~3, 553-7768~9
팩스 553-2449

교 차 로

한·티 교류협의차 인도방문



홍선스님(홍국사 주지)은 한·티 친선교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출국했다. 스님은 티벳의 동남아 담당 카르마 갤렛유석스님과 동행하는데 인도방문중 티벳승왕 달라이라마와 단독대담을 갖고 한국과 티벳의 불교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논한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

아시아 미술초대전 출품



월강스님(대한불교법화종 부산교구종무원장)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전시되는 '95아시아 미술초대전에 초대작가로서 서예작품을 출품한다.

전시 개장식에는 일본, 중화민국, 싱가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등의 저명작가들이 대거 초청된다.

교육원 교육국장에 임명

허주스님이 지난 4일자로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으로 임명받았다. 허주스님은 봉은사 교무, 월간 '봉은'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대만서 초청 전시회 협의



성륜스님(화가)은 2월 25일 대만을 방문, 홍콩 대만에서의 초청 전시회를 협의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지역노인 효도잔치 열어



원명스님(구룡산 월리사 주지)은 지난 3일 일일찻집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12일 오후1시 청주예술문화회관에서 제3회 효도잔치를 열고 지역 노인들을 위로했다.

관내 학생에 장학금 전달



곽정출의원(민자당, 불교신도회장, 국회의원)은 지난 2월18일 부산시 서구 토성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명장학회 제3차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중, 고, 대학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4주년



김정태씨(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는 14일 오후 6시30분 마리나 센타 4층 마리나 홀에서 창립 4주년을 맞아 지역 스님과 기관장, 불자등을 초청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민족발전전략' 출판기념회



장기표씨(21세기 사회발전연구원장)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저서 '지구촌시대 민족발전전략'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국정치 선진화' 심포지엄



안동일변호사(재가불자연합 상임의장, 4월회 회장)는 4월혁명 3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3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정치의 선진화 – 개혁정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민연 청주갑 지구당 창당



김진영의원(충북청주 갑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은 국회 예결위원에서 문화체육공보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새로이 출범한 자유민주연합(가칭)의 청주갑 지구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3월14일 오후 2시 충북예술문화회관에서 청주갑지구당 창당을 한다. (사무소) (0431) 221-0041, 55-5007

연꽃케익 만들기 세미나



정판수씨(불과회 회장, 뉴 실크로드제과 대표)는 16일 평택 케익타운에서 불과회 정기회의를 열고 연꽃케익 만들기 세미나 겸 시식회를 갖는다. 회원외에 일반인도 참석, 시식할 수 있다.

국제불광회 한국지부 결성논의



이인옥씨(대만 국제불광회 중화총회 부비서장)는 지난달 20일 귀국하여 국제불광회 한국지부 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씨는 부친 칠순잔치에 참석한후 3월10일 대만으로 돌아갔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서울 경승 기원 대법회

서울시지방경찰청(청장 안병욱)은 지난 6일 오전 7시30분 경찰청 1층 구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서울 경승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정 총무원장 월주스님, 안병욱 청장, 최남진 차장, 엄종일 경승진흥회장을 비롯, 서울 각 경찰서 경승실장, 경승, 경찰서장, 경찰서 신도회장등 2백20여명이 참석했다.

해동화엄 강의에 일본학계 주목

동경대 객원교수 마친 **김 지 견 박사**



김지견(정신문화연구원)박사가 일본 동경대학 문학부 객원교수를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했다. 김박사는 일본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화엄 3조는 신라 의상스님이다"고 주장,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김박사는 1년간의 강의를 통해 '중국, 일본화엄사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내에서 정리한 해동화엄(신라화엄)을 소개했다.

김박사는 또한 동양대학과 대동문화대학등에서 〈경허당 산고〉를 강의, 한국불교를 일본에 소개했다. 김박사는 오는 20일부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신라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정리할 예정이다.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박물관장 홍윤식△과학관장 강태원△보건소장 김장현△ 실험농장장 김경제△ 연습림관리소장 오정수△외국어교육원장 김정매 △기숙사감 김인덕 △체육관장 조영석 △동대신문사주간 송재운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정승석 △총무처장 최창선 △교육방송국장 윤범대 △공보부장 박상호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황상주 △금장생활관장 김영동 △체육관장 최규철 △보건소장 이영현 △외국어교육원장 신송윤 △ 교육방송국장 이계영 △전자계산소장 이태경 △기초과학센터소장 양원강

〈의료원〉△경주병원사무국장 권용범 △포항병원 사무국장 안중옥 △경주병원 경리과장 김준호 △의료원 구매과장 정성호

〈동국발전협의회 상임위원〉 강창순 이사우 임영순

내일을 여는 불자

아이들에 꿈과 불심 심어

조선·동아 신춘문예 당선 정임조씨

"부모나 친구, 그 밖의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지난 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대왕암〉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발을 들여놓은 정임조씨(월간 「동쪽나라」 편집부).

정씨는 이어 〈우리들의 강강술래〉로 올 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도 당선됨으로써 유력일간지 신춘문예 동시부문과 동화부문을 모두 석권한 주인공이다.



지난해 3월, 아동문학과 어린이에 대한 애정으로 교계 월간 어린이잡지 「동쪽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정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동문학에 재능을 보여온 여류문학가.

고교 졸업후 5년간의 직장생활동안 계속해서 글을 써 온 정씨는 아동문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스물다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입학, 학업에 정진할 정도로 학구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다.

"어렸을때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아이들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나무, 하늘, 들판, 꽃들이 모두 제 친구들이었거든요"

일상적인 생활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는다는 정씨는 그러나 흔히 쓰이는 소재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다는 문학도적인 오기도 대단하다.

93년 당선됐던 동시 〈대왕암〉이 그 대표적인 예. 경주 문무대왕 수중왕릉인 대왕암을 소재로 선택한 것도 독특하지만 고기잡이 떠난 아버지의 무사함을 비는 아이의 마음을 석굴암과 감은사, 부처님등 불교적 색채를 통해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씨는 어린이 포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어린이 불교잡지와 같은 매체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단청이나 사천왕 같은 것은 아이들이 얼핏 보기에 무서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동화나 시를 통해 이런 것들을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면서 불교를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정씨는 "불교는 우리의 민족정서에 가장 가까운 종교이기도 하지만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기도 하다"는 불교관을 밝혔다.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 〈우리들의 강강술래〉에서 어린 주인공 '참'이를 통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냈던 정씨는 "미화하기 보다는 삶의 장면을 그대로 존중하여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라며 꾸밈없는 삶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올해안으로 동시집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씨가 그동안 쓴 작품은 대략 1백50여편. 그중에 불교적인 작품은 15편 정도. 그러나 글로써 불교사상을 녹여 내 포교에 앞장서고 싶다는 정임조씨는 벌써부터 설레임으로 행복해 한다. 〈한명우 기자〉

'대왕암' 등 시 150편 모아 곧 발간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가 항상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자 '정각'지를 통해 펼치는 국회직원신도회의 신행 지침이다.

매달 2회 발행하고 있는 정각지는 작은 지면에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생활속으로 전하는 중요한 포교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창립된 국회직원불교신도회는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회사무처내에서 묵묵한 신행의 터를 닦으며 1백 80여명 회원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해 왔다.

국회의 회기때를 제외하고 1년에 4~5회 사찰순례법회를 실시, 전국 요산요수의 유명사찰중 그들의 발길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고운사, 부석사, 직지사, 법주사 등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에서 옛선사들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며 스님의 법열속으로 너와 나의 실체를 잊은 무아의 경지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1박2일간 강원도 등명 락가사에서 상원사 적멸보궁, 월정사로 이어진 사찰순례 일정에 올라 법문과 참선정진, 회원간 마음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탐 방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의사당내 법당 만들기에 전력

80년 창립, 매월 2회 '정각'誌 발행

이러한 모든활동은 회원들간의 자연스런 마음의 융화를 가져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실 국회사무처라는 직장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활동상에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신심으로 이를 극복, 최선을 다해 모임을 이끌고 있다.

현재 국회법당건립을 추진 준비중인 국회직원신도회 이범이회장(국회 예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은 "그동안 큰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법문을 들을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 신행활동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말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신심을 닦을 국회법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직원 불교신도회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어려움을 신행생활로 녹이며 하나된 팀웍으로 움직이고 있다.

불교도서대여, 경전보시, 정각지 포교, 등 여실한 신행활동으로 직급을 통한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어려움을 녹이고 하나된 팀웍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앞으로 국회직원불교신도회는 더욱 내실있는 정각지 제작으로 국회뿐 아닌 대사회 포교에 매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당을 마련, 국회사무처 곳곳에 부처님의 법향을 퍼져나가게 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게 시 판

이전 ▲실천승가회 사무실=지난 3일 종로구 가회동 31-13번지에서 인근 177-1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44-1593

▲해인사 장경연구소=서울 사무소를 용산구 한남2동 683-139번지로 이전했다. (02)797-0585

▲수련생 모집=음니선원(원장 태광)은 심신을 강화하고 심성의 본체를 깨달아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한 기공명상 수련생을 모집한다. 3단계 수련과정에 오전, 오후반 수련시간이 있다. (02)765-5387

▲신입생 모집=청주불교대학이 1년과정의 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4일까지이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충북불교문화원에서 한다. (0431)273-5866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 기원



천 수 천 안 관 음 송 가

자유평화 행복을 전하는 삼보합창단에서는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천수천안 관음송가 전국순회공연을 마치고 금번 서울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당 흥겨운 민족의 잔치에 함께 어울려 통일대업을 성취합시다.

대회장 불교텔레비전 대표 김 태 응
전국순회공연 봉행위원장 윤 지 원



- 작사 윤 지 원
- 작곡 변 규 백
- 지휘 변 규 만
- 합창 삼보합창단
  도선사합창단
  봉은사합창단
  성보사합창단
- 연주 삼보국악관현악단
  삼보무용단·춤자하
- 안무 민 연 옥
- Sop 정 회 정
- Bar 김 성 국

■ 때 : 1995년 (양) 4월 8일 (土) 오후7시
■ 곳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 불교텔레비전, 조계종삼보사
■ 주관 : 삼보합창단
■ 후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은평불교사원 연합회, 한국일보사, 불교신문, 불교방송
● 공연문의 : 삼보사(02)352-6406~7

■ 찬 조 출 연 ■
- 대각사합창단
- 관음사합창단
- 불교성악회합창단
- 수국사합창단
- 효동선원 중앙 합창단
- 본각사 합창단

대한불교 조계종 삼 보 사



십화 · 이기선

대안스님 인사법 따르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6

大安

'잘 잤소' '밥 잘먹었소' 보다 '잘 살아, 잘 사세'로 평안발원

모든 사람은 아침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냄새를 맡거나 꼬리를 흔들면서 짐승나름의 인사를 한다. 날짐승인 새들도 짹짹 거리면서 인사를 한다. 인사처럼 정겨운 것은 없다.

"밤새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인사가 밤사이에 어떠한 위계의 사건이 없었느냐 하는 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진지 잡수셨느냐"는 인사는 빈곤과 기근에 흡싸일 때 안간힘으로 내뱉는 인사일 것이다.

사회적 정황에 따라 인사도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풍요롭게 되면 자연히 인사도 풍요롭고 정답게 될 것이다. 잠을 잘 잤느냐, 밥을 먹었느냐 하는 인사는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곱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누습속에 찌들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요, 언어 구사의 맹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처럼 경화와 만복을 누리게 되었을때 인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주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건배' '위하여' '지화자' 등 온갖 인사법이 있지만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다. 건배하면서 잔을 비우기 시작하는 과다음주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표현, 지화자 하면 좋다 하는 낙천성 음주다. 이 모두가 몸을 해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언어는 사상을 전달하고 사상은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니 첫번째의 언어가 심오한 사상이 담겨지도록 노력하고,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정서적으로 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구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소잔하고 말 것이다.

일찍이 신라시대에 위대한 걸승이 살았다. 그 이름은 大安이라고 했다. 大安인지 아니면 항상 '대안, 대안'이라고 노래처럼 불러서 大安인지 확언할 길이 없다. 그러나 大安스님은 서라벌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안 대안'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닐 것이다. 염원이고 기도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대안이요, 병든 사람을 만나도 대안, 힘이 있거나 부, 자를 만나도 한결같이 대안이라 하니 여기에는 어떤 주술적 신비가 서려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 대안이란 주문에 의하여 빈천보를 벗어나게 하고픈 염원이 깃들어 있고, 병든 사람은 온갖 질병의 수렁에서 완쾌의 건강을 회복하라고, 힘이 있어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이 대안이란 주문을 듣게 되면 힘없이 가물거리는 사람에게 요익을 주는 대장부가 되어야 함을 암시함이다. 또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이 대안의 노래를 들으면 삼륜청정행의 보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노래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大安스님이 '대안 대안' 하였다는 것이 지금 한문으로 표기된 "大安"일까. 아니면 "잘 살아, 잘 사세"였는데 표기하다 보니 한문의 '大安'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신라의 걸승이었던 대안스님은 일체중생을 만나면 '잘 살아, 잘 사세' 이렇게 기도하고 발원하였을 것이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눈알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 자기 자신만 배부르고 편안하면 잘 사는 것으로 오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아닌 남이 편안하여야 한다. 남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근원적이고 심원한 삶의 철학을 익히 깨친 분이 大安스님이 아닌가. 그러므로 스님은 깨친 자리를 노래로 한 것이다. 즉 그것이 '잘 살아, 잘 사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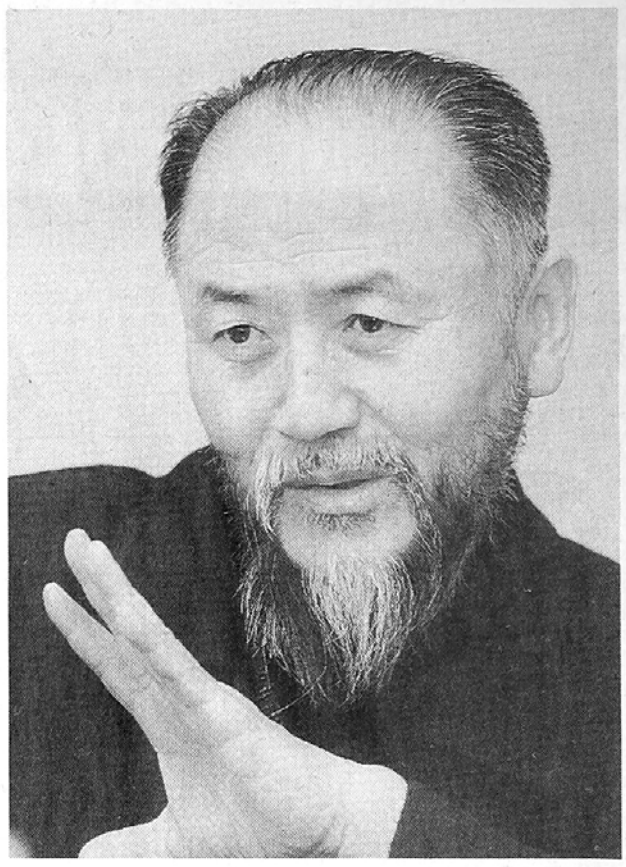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주변은 이익사회로 아니면 경제동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가면 자연 이 사회는 경쟁만이 남아 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치유하기 위하여 인사법이 바뀌어져야 할것이다. '잠 잘 잤소' '밥 먹었소'하고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균형만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 언어속에 스며있고 항상 노래되어 다른 중생을 행복하게 염원하고 발원하는 인사법으로 환치되어야 한다. 마치 대안스님이 저자거리에 헤매이고 있는 저 거렁뱅이에게 부드러운 노래로 들려주는 '대안 대안' '잘 사세, 잘 사세'하는 노래인사가 불교적 인사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피사체로부터 해방됐어요"

산문박의 散門博意

사진작가 육명심 교수

白民·장승등 '한국의 얼굴' 찾아 전국탐사
참선으로 '보는 눈' 확대…퇴직후 출가 결심



"일부러 인물만을 찍으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봐도 신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25년 사진작가 생활을 해온 육명심씨(62, 서울 예술전문대 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진집을 내게됐다. 회갑을 맞아 후배와 제자들의 간곡한 청으로 오랜동안 찍어온 사진중 85개의 사진을 골라 담았다. 두툼한 사진집에는 가지각색의 얼굴들이 담겨 있다.

신기어린 무당, 무섭게 이빨을 드러낸 천하대장군,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웃고 있는 스님, 아들을 낳고 싶은 여인네들에게 코가 문드러진 석불, 제사 올리고난 제주(祭主)의 엄숙한 얼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 잠이 들어 버린 노파…

육명심씨가 제일 먼저 피사체로 잡은 대상은 예술가다. 성공했거나 희열에 잠긴 예술가의 얼굴이 아니라 고통에 빠진 예술가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창작에의 몰두로 생각에 잠긴 얼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으로 고뇌에 잠긴 모습…

1백여명이 넘는, 시인 소설가 화가 조각가에서부터 인간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세계를 갖고 있고 가장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의 얼굴들을 포착한 것이 8년 여. 그러나 왠지 허전해졌다. 그의 관심은 백민(白民)으로 넘어간다. 이름없고 벼슬없고,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정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토박이 민중들.

그때부터 그는 문명화되거나 서구화되어지지 않은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 전국을 헤맨다.

청학동으로 제주도로, 빌신굿이 열리는 동해로, 또 향교로… 이때 많이 찍은 것이 농민들 어부들이며 무당들이다. 굵은 주름 또는 검게 그을린 살갗, 무표정하지만 솔직한 표정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스님들 얼굴에서도 한국인의 원형을 보았다. 운허 · 구산 · 벽초 · 혜암 · 법정스님 등도 그때 카메라에 담았다.

육명심씨는 하나의 표정을 잡기 위해 120여 커트이상 사진을 찍는다.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인물사진이다. 인물에 매달리던 그가 80년대 초 또 대상을 옮아간다, 장승으로.

마을어귀나 뒷산, 길가에 세워져 마을을 지켜준다는 장승. 악귀를 쫓는다는 그것은 험악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만 장승은 한국인의 얼굴을 똑 닮았다.

그런 그가 지난 82년 부석사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무량수전 가는 길에 7세기경에 만든 석탑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천 삼백년 세월을 건너 뛰어 탑과 마주하니 감개가 무량해 지더라구요. 감개에 젖어 무량수전쪽으로 내려오는데 내 발이 땅에 딱 닿는순간 징이 쿵하고 울린 것처럼 내 속에서 울려오는게 있었어요"

그는 발이 닿은 땅에서 천지개벽하던 때의 울림을 느꼈다고 했다. 몇 만년, 몇 억년의 세월을 땅과의 부딪힘에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사진들은 '지금 여기'라는 느낌을 소중히 담게 된다.

인물을 찍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이란 인물을 담기 보다는 그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먼 조상에까지 이어져 있는 인연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 영문과를 나온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신혼여행에서 부인이 가져온 카메라 때문이었다. 취미삼아 배웠지만 타고난 감각이 탁월한 때문인지 카메라 찍는 법을 배운지 6개월만에 촬영대회에 나가 상을 타게 된다. 그리고 또 6개월만에 '아이들'을 찍은 사진으로 국제사진싸롱에서 입선했고, 2년후에는 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으로 최고상을 탔다.

동아사진콘테스트까지 휩쓴 그는 당시 4년제가 된 서라벌 예대에서 강의 요청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강단에 서며, 사진작가로서 외길을 걸어오게 된다.

육명심씨는 매일 새벽 2시50분에 일어나 3시부터 두시간씩 참선에 몰입하고 있다.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한 지난 91년부터 시작한 참선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 역삼역 근처 오피스텔에 꾸며 놓은 선방에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참선에 몰두하곤 한다.

"참선이 즐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열린 시간이며 우주로 시야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는 대학다닐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지만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철학강의를 많이 들었다. 노자 장자 등 도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까지, 그리고 단전호흡 국선도 인도명상까지 섭렵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붕 뜨는등 속칭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만두었다. 요사스러운 것을 멀리하려는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이다.

육명심씨는 이 모든 것을 불교와 정식으로 만나기 위한 오랜 정신적 편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종교적 세계 그리고 신비주의를 거쳐 마치 회향하듯 자연스럽게 불교세계에 입항하게 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불교를 알기 전에는 금붕어가 어항안에서 밖을 보고 밖을 향하듯 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더이상 한국적인 것, 토박이들을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는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찍고 파리의 최첨단 패션을 찍더라도 한국적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적 사진이다 라고 사고의 개념이 바뀌었다.

우리 정신과 문화의 뿌리인 불교야말로 가장 한국적이고 생명적이게 하는 정신의 원류임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는 정식으로 불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무얼 찍겠다는 생각이 없다. 불교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불교적 소재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생명에의 경외심으로 자기자신을 만나듯 진실한 표현으로 누구나 불교적인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그는 이제 대상 선정에도 자유롭다. 자연스럽게 피사체와 자신이 합일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렌즈에 담아 걸림없이 표현하고 싶다.

그는 사실 꿈을 아직 못 이루었다. 국민학생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남몰래 이루기를 바랬던 꿈. 비록 어머니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은 "스님"이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정년퇴직 후 출가를 하고 싶다. 그 꿈은 마치 오랜 동안 방황하다 고향에 돌아온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경숙 기자〉

無上大道는 사람마다 본래 平等하게 지닌 宇宙大光明의 無限한 能力을 말한다. 世界化時代를 맞이한 全人類는 大道를 배워 人間의 無限에너지를 開發하여 世界를 새롭게 하는 大道文化를 實踐해야 한다.

共産主義를 비롯한 西洋思想은 용도폐기되었다. 이제는 東洋의 無上大道思想으로 人類를 大活하여 世界를 새롭게 할 때이다.

儒敎의 「大學」은 東西洋 經典中 大道를 世間道學의 次元에서 體系的으로 가장 잘 밝힌 前無後無한 大名著이다. 이 「大學」을 佛敎의 最高次元인 一乘哲學으로 千古에 둘도 없는 注釋을 한 智旭大師의 「大學直指」를 東洋三國에서 唯一하게 儒佛仙 三敎로 會通한 覺性스님이 獨步的인 名講解를 한 「大道直指」는 韓國出版史上 大道를 가장 잘 밝힌 大名著로 記錄될 것이다.

統和叢書 第一集 「大道直指」를 發刊하면서

지금 세계는 最尖端의 벼랑을 향하여 짙은 안개속으로 暴走하는 奔馬와 같아서 懸崖勒馬의 非常한 救出이 없으면 人類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大道는 宇宙萬有의 本體이며 唯一無二한 人間生命으로서 죽어도 죽지 않는 實體大本이다. 根本이 어지럽고 末端이 다스려질 수 없음은 天地가 억만번 변해도 바뀌지 않는 鐵則이다. 인류가 大道大本을 잊어버리고 忘本招亂으로 天下大亂을 自招했다. 天下大亂을 平定하고 인류를 大活할 方法은 「大道大本을 세우는 一大事」 한 길만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없다. 먼저 自己의 無形인 大道를 제대로 밝히면 그 결과는 有形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宗敎, 哲學, 道德, 性理學이 自己의 大道를 밝히는 明自와 大道를 깨닫게 하는 明他밖에 없다.

孔子의 孫子인 子思子께서 著述한 「大學」은 明明德 · 親民 · 止於至善인 格物 · 致知 · 誠意 · 正心 · 修身 · 齊家 · 治國 · 平天下의 哲學을 총정리한 儒敎綱領이며, 世間道學의 次元에서 大道를 체계적으로 잘 밝힌 前無後無한 大名著이다. 그 「大學」을 佛敎의 最高次元인 一乘哲學으로 千古에 둘도 없는 최고의 注釋을 남기신 智旭大師의 「大學直指」와 朱子, 程子(伊川)가 잘못 해석한 「大學」注釋을 많이 바로잡은 王陽明先生의 「大學問」을 지금에 儒 · 佛 · 仙 三敎로 會通을 한 覺性스님이 唯一無二한 獨步的인 名講義로 大道를 밝힌 名著가 곧 「大道直指」이다.

돌이켜보건대 그 眞理를 일찌기 세상에 알려주신 元曉大師와 海東孔子 薛聰이 신라의 찬란한 文化를 꽃피웠다. 그러나 孔子의 根本眞理를 깊이 통달 못했던 程朱學에 平生을 바친 李朝의 儒學者들은 이러한 「大道直指」를 만날 수 없었다. 그 大道를 알기 쉽게, 빠른 길로 명료하게, 잘 밝힌 「大道大衆化」를 보여준 「大道直指」의 發刊은 세종대왕의 「文字大衆化」를 이룬 한글創製와 더불어 韓民族史上 大發展이며 크나큰 慶事라 할 것이다.

「大道直指」의 出現은 東方聖者들의 「統和大道의 共同宣言書」로서 天上天下에 제일 높고 깊고 넓은 大道가 이 땅에 밝아지는 시작이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때이다. 大道의 먼동이 튼다. 머지않아 大道의 해가 뜨는 새 아침이 온다. 한국은 해뜨는 東方의 나라, 고요한 아침에 빛나는 나라로 일컬어져 오지 않았던가.

아침에 빛나는 나라의 七千萬 동포여!

우리나라 歷史上 처음으로 누구나 쉽게 大道를 接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어질고 착하고 잘 참는 韓民族만이 겪어온 千死萬難의 試鍊의 代價로 얻어진 無量大福이며, 韓半島에서 東方의 大道를 르네상스하여 南北統一과 함께 世界萬邦에 大道를 發信하는 大道宗主國이 되어 地球村에 統和世界의 太平洋時代를 여는 中心役割을 하라는 世界史的 至嚴한 命令이기도 하다.

大道를 터득하면 저절로 人力 · 資源 · 技術의 三大開發을 이루게 되어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經濟力을 保有할 수 있다. 그리고 自由 · 平等 · 博愛 · 平和와 眞善美 등 最大幸福을 이루는 統和體로서 萬有의 常樂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世界統和의 大道時代가 열리게 됨은 人類史의 必然的 事實이다. 그러므로 大道의 原理를 모르고 世界化를 이룩한다는 것은 蒸砂作飯이다. 지금 세계는 大道에 어두운 軍事, 政治, 經濟, 宗敎, 言論, 文化 其他 여러 分野의 마피아 覇權主義者集團의 큰 마당이 되어 있다.

우리 國民뿐 아니라 全人類가 大道의 統和叢書를 보고 사람마다 本來 具足한 宇宙大光明인 平等大道를 꺼달아 覇權主義者集團이 世界를 支配하려는 野欲을 종식시키자. 그리하여 한 사람의 敗者도 없이 모두 함께 勝者가 되는 大歡喜大圓滿의 統和大道世界를 이루고자 統和叢書刊行會는 앞으로 계속 東洋大道聖書의 講解本을 刊行할 것이다.

一九九五年 一月 一日 統和叢書刊行會



覺性스님

각성스님 경전강의
비디오 · 오디오 테잎 보급

* 화엄경
* 법화경
* 금강삼매경론
* 능엄경
* 선관책진
* 유식30송
* 대학(대도)직지
* 천태사교의
* 중용직지

〈흑판 강의 완전수록, 자막처리〉

문의처 : 붓다의 메아리
전화(051)867 - 3861

우편판매 송금 온라인 구좌

(우 체 국) 601310 - 0034992 성영회
(국민은행) 104 - 24 - 0383 - 624 성영회
(부산은행) 021 - 02 - 046772 - 7 성영회

통 화 총 서 간 행 회

우편번호 614 - 031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390 - 34
(화엄회관 2층 화엄학회)
전화 : (051)816 - 3318
팩스 : (051)802 - 5718

統和叢書 第一集

大道直指

子思 著
智旭 述
覺性 講解

신국판 688쪽
호화양장케이스
값 20,000원

불교학술 논문 발표마당 넓어졌다

학보·논집·교지등 20여종…90년이후 급격히 증가

불교학계의 불교전문 학술지는 약 9종. 이밖에 불교학논문이 주로 발표되는 각종 논총·교지 등을 합하면 20여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90년 이전까지 5종을 넘지 못하던 수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불교학계의 연구기관 설립 붐과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발맞추어 연구실적의 발표마당도 함께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불교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학보〉는 63년 10월15일 제1집을 발행한 후 지금까지 제31집을 내고 있다. 〈불교학보〉는 불교문화연구원 소속 교수·연구원들에게만 논문게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연구수준을 유지하며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다.

올해로 학회창립 20돌을 맞이하는 한국불교학회의 〈한국불교학〉은 지난 75년 12월에 창간호를 낸 후 현재까지 제19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도 교수, 강사, 박사과정 수료자, 공인연구기관 연구원 이상으로 발표자격을 제한하면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93년부터 1년에 2차례의 전국 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불교학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3호를 낸 〈중앙승가대학 논문집〉은 교수 연구논문집으로서 짧은 연륜에 비해 깊이있고 알찬 논문들을 싣고 있다. 지난해 제4집을 낸 국제선무학회의 〈선무(禪武)학술논집〉도 강사급 이상의 회원으로 불교학과 사상·체육·문학·의학 등의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시도, 불교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밖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학보〉, 백련불교문화재단의 〈백련불교논집〉, 영축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문화연구〉, 원효사상연구소의 〈원효사상연구〉, 대한불교진흥원의 〈다보〉, 회당학회의 〈회당학보〉 등도 짧은 연륜에도 불구, 다양한 기획과 주제로 연구업적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이 중 〈원효사상연구〉는 10집까지 나왔던 〈불교연구〉의 이름을 바꿔 올해 제2집을 낼 계획이며, 〈가산학보〉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제정한 불교와 제과학 관련 '가산학술상'에 의해 추천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인재 발굴과 불교학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교수·대학원생·학부생들의 논문을 함께 게재, 알찬 논문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 논집으로는 먼저 2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동국사상〉과 동국대석림회의 〈석림〉, 동국대 대학원의 〈연구논집〉, 중앙승가대학의 〈승가〉, 해인승가대학의 〈수다라〉 등이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관등 다뤄
회당학보 3집 발간

회당학회(회장 변종오)의 〈회당학보〉 제3집이 발간됐다.

이번 논집에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치유와 회당정신」(곽만연), 「천수경과 회당의 심인불교」(김호성) 등 제3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5편과, 「불교 여성관의 발전적 모색; 회당의 여성관 검토」(최경아), 「만다라의 이론과 실천」(허일범) 등 연구논문 5편이 수록돼 있다.

근·현대 불교사 조명
해인승가대 '수다라' 10집

해인승가대학의 〈수다라〉 제10집이 나왔다.

이번 〈수다라〉지에는 「화엄경에 나타난 원자물리」(수진), 「유식종의 연기론」(응각), 「떠돌이 놀이패와 사찰과의 관계고찰」(법장), 「불전의 한글 번역을 위한 방법론」(원철) 등의 교수론단과, '근·현대 불교사의 조명'이 특집란으로 다뤄져 있다.

해인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석주스님이 쓴 해인사 극락전의 주련.

〈극락전〉
自從今身至佛身
(자종금신지불신)
堅持禁戒不毁犯
(견지금계불훼범)
唯願諸佛作證明
(유원제불작증명)
寧捨身命終不退
(영사신명종불퇴)
我昔所造罪惡業
(아석소조죄악업)
皆由無始貪瞋痴
(개유무시탐진치)

"계율·참회로 다지는 성불의지"

從身口意之所生
(종신구의지소생)
一切我今皆懺悔
(일체아금개참회)

지금 이몸 불신이 되기까지 금게 계율을 지켜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리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시옵소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물러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지은 모든 죄악업 들은 하나같이 한량없는 탐진치로 일어났네. 몸과 입과 뜻을 좇아 생겨난바 모든 죄업을 나 이제 모조리 참회합니다.

해 설 전반부는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도의 큰 원력을 이루겠다는 서원이다. 후반부는 기왕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참회하는 간절함이 서린 구절이다.

이 내용은 〈율장〉의 「입지게(立志偈)」이다.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은 매우 많다. 많을 뿐 아니라 그 실천 사항이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계율을 따로 공부하는 곳을 율원(律院)이라 하는데 해인사의 극락전은 율원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주련의 내용중 뒷부분은 천수경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낯설지 않은 구절일 것이다. 이 참회의 언어들이 율원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계율을 몸바쳐 지킴으로 성불의 큰 원력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씻어 내려는 마음이 에인 이 글귀는 현재 삼청동 칠보사의 조실인 석주(昔珠)스님의 글씨다.

〈안동 경안중 교사〉

경허·한암스님 정혜결사정신 계승

'권수정혜결사문' 대승경전·선어록 인용



◇ 김호성씨



◇ 고희숙씨

김호성·고희숙씨 밝혀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를 계승한 경허와 한암의 결사에 대해 조명한 논문과 「권수정혜결사문」에 나타난 인용문의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보조의 선사상을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의 〈보조사상〉 제8집에 게재될 김호성씨(청주대 강사)의 「결사의 근대적 전개 양상; 정혜결사의 계승을 중심으로」와 고희숙씨(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실)의 「권수정혜결사문에 나타난 보조선사상의 고찰」이 바로 그것.

이 두편의 논문은 소장학자들에 의해 씌여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새로 발견된 한암의 결사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허와 한암의 결사운동을 조명한 점,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에 나타난 인용문의 정확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보조의 선(禪)사상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씨는 논문에서, 경허는 보조의 정혜쌍수를 근본이념으로 하면서도 정혜결사의 정토신앙 대신 미륵신앙을 추구해 독창적 변용을 시도했으며, 한암은 고성염불을 비판하면서도 유심정토설에 입각한 염불선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염불·참선이 둘이 아님을 제시하고 보조의 선교겸수의 가풍을 계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허와 한암의 결사가 모두 '수행운동·개혁운동'이란 점에서는 보조의 정혜결사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개혁운동·공동체운동'이란 성격은 현저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조전서(普照全書)」의 종지라 할 수 있는 '선교일원·정혜쌍수(禪敎一元·定慧雙修)'의 사상적 배경을 분석한 고희숙씨는 "보조국사는 「권수정혜결사문」에 33종이나 되는 많은 경·논(論)·어록을 62회나 인용하면서 그 논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권수정혜결사문」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별로 내용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와 비교해 인용문헌의 특징을 파악했다. 고씨는 이들 문헌들이 대부분 대승경전이나 주요 선승들의 어록이라고 밝혔다.

'통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의미는

문 스님의 말씀 가운데 '통 밖으로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실참의 경우 어떤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심인지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최미희)

답 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의식·사량분별, 고정관념 등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의 의식세계를 이름이지요.

내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준 것, 나의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불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 하는 식으로 우리는 매사에 나를 앞세웁니다. 아니 앞세우기 보다는 그런 의식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상·아집·아만으로 억눌려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힌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지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밖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생각 넓게, 지혜롭게, 자유롭게 활달할 수 있다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밖으로 나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나'를 전제로한 굴레에 묶여 있고서야 어찌 나를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작용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로부터 벗어나야 자유자재한 대권을 쥘 수 있겠지요. 그게 해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벗어나야지! 한다면 그것 역시 벗어나겠다는 굴레에 묶인 것이니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마음내기 이전 마음을 관해보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의 '급하다 급해' 뜻은

문 옛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마곡사에 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급하다 급해"하셨고 가끔 방에서 대변을 보아 사방벽에 문지르는 기행을 보이셨습니다. 노스님 다비식 때 시봉스님이 그일을 생각하고 혼잣 말로 "스님 지금도 급하십니까?" 했더니 불속의 노스님께서 주먹을 불쑥 내밀며 호령하시기를 "급하다 이놈아!"하셨답니다. 노스님께서는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심입니까? (충남 공주시 신관동·최용호)

답 이왕 공부길에 들어섰으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집어 삼키는 자유자재권을 거머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스님께서는 이 공부가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노스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한가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느 겁에 이 공부를 마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을테고, 저러다가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는 커녕 억겁을 두고 육도윤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셨겠지요. 그러니 어찌 "급하다 급해"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노스님의 입버릇엔 자비가 철철 넘쳐흐르는군요.

또 대변을 사방 벽에 쳐바르신 것은 회향하는 도리를 일러주신 우뢰같은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공부해서 삼천대천세계를 삼켜야 하고 삼켰으면 소화해서 다시 내놓는 경지를 터득해야 하느니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리를 깨닫고 나서는 중생에게 이익되게 회향해야만 할 일을 마치는 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듯이 마음도리를 깨우치고 회향할 줄 알아야 하니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겠습니까? 삼키는 일도 급하고 삼키고 나서 되내놓는 일도 급하고 급합니다.

불경에 33천만 언급한 이유는

문 어떤 사람이 제게 "불교는 기독교보다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 성경에는 35천이 있는데 불경에는 33천까지 밖에 없으니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3동·김신환)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답 옛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하룻밤 잠자리를 청해 들었는데 마침 한 노스님이 먼저 유숙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고는 정좌한 채로 백지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오래 지켜보아도 그 모습 그대로인지라 답답하고 궁금한 생각에 물었습니다. "아니, 노스님께서는 어찌해서 글 한 줄 없는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하니까 그 노스님 말씀이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치룰 수 있네"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과거 보는 데만이 아닐세, 백성을 제도하자면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하네"하셨답니다.

이 선비는 제법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 어렵풋이 뜻을 헤아렸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서 그 뜻을 이러저러 일러 주었답니다.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만 매사를 형상으로 보고 형상에 걸리면 정신계와 물질계를 어찌 넘나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공부도 단계가 있는지요

문 어디선가 마음공부하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지요?

(경기 군포시 당동·류대경)

답 탑을 쌓으려면 돌을 하나 갖다놓고 또 하나 갖다놓고 하면서 다 쌓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봉우리를 올려 놓게 됩니다. 하나 더 쌓았다, 덜 쌓았다 할 것없이 그냥 쌓아 올리는 것이지요.

마음공부 하는데 한 계단 올라섰다, 내려섰다 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걸림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계단입니까. 동쪽이다 하면 곧 서쪽이고 서쪽이다 하면 곧 동쪽이듯이 마음자리도 고정되게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콩어묵·전유어·떡어묵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 · 봉사요원 파견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2-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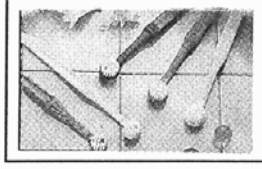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9-2450

(주)미래 케이블 TV
Future's Cable Television, Inc.
중앙대리점
불교 케이블 TV 가입문의 환영
張載豪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2-41(대창빌딩 3층)
TEL.(02)992-4777~8, (02)991-3157~8 / FAX.(02)992-4778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윤주사 출판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30-9372~3
·FAX (02) 723-0646

첫솜의 기술혁신

빙글빙글 360도 돌면서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준다!
그래서 특허품! (02) 556—3076~7
빙글빙글 돌기때문에 화우 양치질한다오도. 요곳저곳 세곳이 닦여집니다 양치질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 이제 전혀 새로운 칫솔의 첫솜을 만나보세요 그 이름은 'Cede-B'!

안내
귀의 심보하옵고
전국 저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요.
이회을 알씀은 분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등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중은 정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존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식회사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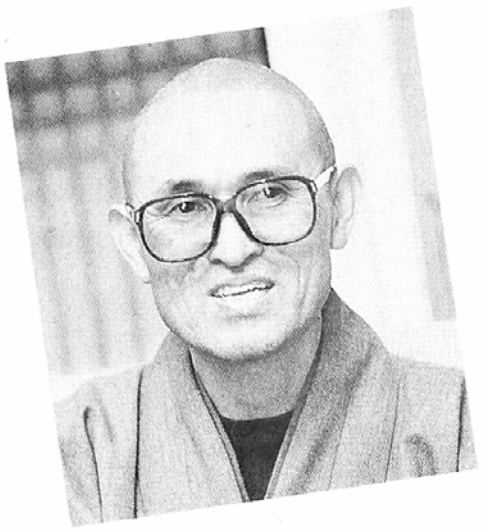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희방사(대한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태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음성(참보사) 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타산(천관사) 대웅전 수미단 중각
·고성(악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중각
·서울(백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행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출가·열반절 기념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 요지

"부처님 닮은 삶 살아간다면 훌륭한 출가"

위대한 출가·깨달음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출가절날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출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출가를 생각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시대의 스님들이 왜 출가를 했는지를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건 상관없이 올해의 출가절이 지나갔습니다. 출가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 수행을 하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빛나고 가장 훌륭한 출가를 한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출가. 그것은 곧 자기버림에서 시작된 자기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의미를 이러쿵 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일생 그 자체가 위대한 출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훌륭한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의 인연들을 다 버리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삶이 주는 진정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목적, 즉 그 위대한 원력은 그 생애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 원대한 발원과 빛나는 실천의지가 곧 사홍서원(四弘誓願)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번뇌를 다 끊겠다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그 원력과 실천 과정이 점철된 삶이야 말로 가장 위대한 출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홍서원은 발원이자 실천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곧 성불의 큰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뭔가를 이루려는 원력과 실천의 행이 있어 아름답고 숭고한 것임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출가자의 목적이 뚜렷하듯 출가정신은 철저히 큰 원력을 성취하려는 굳은 의지로 일관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행이 바른 신행생활입니다. 믿고 행하는 일이 그릇된 사람의 삶은 무엇하나 바른것일 수 없습니다. 바른 삶의 뿌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입니다.

교법의 이해는 그 바른 믿음을 발휘해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도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율지키기 역시 바른 믿음의 실천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이고 편안함이고 청정입니다.

이같은 의지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발심을 할 수 있고 수행의 이력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곧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전법포교하지 않는 불자는 부처님 밥을 혼자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탐욕의 화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긍지를 느끼고 자신의 신행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긍지가 이웃의 삶에 법향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불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출가 합시다. 마음의 출가를 해서 사홍서원을 이루고 참다운 불자의 바른 삶을 지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미혹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저 아름다운 니르바나의 언덕으로 건너 갑시다.

"내 눈과 마음은 적나라한 열림의 세계"

눈뜨기 · 마음 열기

고 은〈시인·본지 논설고문〉



사람은 그 일생 가운데서 몇 번인가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 기회야말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을 예로부터 개안(開眼)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문학 '심청전'이 있다. 그 세계도 어둠으로부터 밝은 세상에의 눈뜨기라는 커다란 사건이 그려진다. '심청전'은 매우 불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점에서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발전하는 진리인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세계와 만난 것이다. 그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밑의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는 샛별과 눈이 부딪치는 순간 우주전체를 아우르는 대철리(大哲理)를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눈과 우주의 눈이 서로 일치된 경지였다.

바로 이같은 눈뜨기의 최고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불멸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눈뜨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현실을 박차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것을 출가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출가를 반드시 소승불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은 출가의 네 가지 종류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몸으로의 출가, 둘째 마음으로의 출가, 셋째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출가, 넷째 몸과 마음 어느 한 쪽도 불가능한 출가가 그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출가납자들처럼 출가하지 않아도 마음으로의 출가를 할 수 있다.

유마는 소승의 눈에는 재가자이나 대승의 눈에는 어느 출가자보다 더 무서운 출가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아니다. 바로 그런 눈뜬 세계야말로 진리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일을 우선 견성(見性)이라 한다. 우주의 본성을 보는 것이다. 고행자 싯다르타가 새벽 명상 끝에 본 것이 바로 그러한 본성이다.

가장 궁극적인 눈뜨기야말로 여기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된다.

놀라운 것은 그가 깨닫은 눈으로 보니 횡란한 보드가야 일대는 물론 이 세상의 혼탁한 악세(惡世) 자체가 전부 보리의 세계이며 갖가지 보화로 가득하며 장식도 궁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화엄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세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중생의 나날이었던가.

한 수행자로부터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으로 바뀌어진 부처님은 그 같은 눈뜬 세계를 얼마동안 혼자 비장하고 있다가 끝내 그것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정했다.

진리란 숨긴다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바로 감겨진 눈이 아니라 열린 눈이고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려야 할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는 일과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일치로서의 정신적 최고형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까지 볼 수 있는 세계, 있는 세계로부터 새로운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더 높고 먼 세계에의 순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길의 종교이다.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종교이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났다. 길에서 깨달았다. 길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끝내 길에서 이 세상을 마쳤다. 이런 부처님 일대기의 역사적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길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길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이야말로 어느 곳 한군데 걸리지 않은 해탈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 그것이 곧 문이 달리지 않고 창이 달리지 않은 허허벌판과 같은 적나라한 열림의 세계아니던가.

그러나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과 어긋날 수 없다. 부처님도 몇번인가 가비라성의 귀가 사건으로 그의 교단이 더욱 풍부해졌다.

끝내 출가와 재가는 하나이다.

출가·열반 뜻 전하는 말씀

출가란 대정진 통해 번뇌 제거하는 실천
탐욕·분노·어리석음의 소멸이 바로 열반

출가 ▲삭발하는 것만으로 출가라 하지 않는다. 대정진을 일으켜 중생의 일체 번뇌를 제거하려 할 때 이를 출가라 한다. 〈비화경〉

▲어떤 이가 찾아와서 출가를 원하거든 의복과 밥을 주고 4개월간 함께 살아야 하며, 만약 그를 관찰해서 제도 할 만한 자라고 보여지면 비로소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것이다.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집을 나온 사람은 하천하게 생활하나니 머리를 깍고 발우를 가지고 집집마다 밥을 빈다. 혹시 천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훌륭한 이치를 구하기 위해서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과 번민·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잡아함경〉

▲집에 있으면 시끄럽고 어지러우며 또 물들고 집착하지만, 집을 나오면 고요하고 한가롭다. 집을 나온다 하더라도 속인으로서는 한결같이 순수하고 원만하고 범행이 청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잡아함경〉

▲집에 있거나 집을 나와도를 배우거나 바른 행을 행하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 바른 행을 행하는 자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다. 〈중아함경〉

열반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현세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돌아가 있다. 세상의 애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숫타니파타〉

▲존자 사리풋타는 마가다의 나라카촌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유행자 잔부카다카는 사리풋타를 이렇게 물었다.

"존자님, 열반 열반 하는데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탐욕의 소멸, 분노(증오심)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고 말고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팔정도(八正道) 야말로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길입니다. 즉, 바른견해(正見), 바른생각(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행위(正業), 바른생활(正命), 바른노력(正精進), 바른기억(正念), 바른선정(正定)입니다. 진실로 이 길과 이 방법은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응부경전 제4권〉

경건주간에 읽을만한 책

'소설 붓다' '인도기행' '마음닦는 길' 등 유익

경건주간을 불서와 함께 보내자.

〈**소설 붓다**〉로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 해보자. 경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적을 배제했으며, 국가사회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소설로 구성했다. '깨달은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틱낫한스님의 작품으로 장경각에서 펴냈다.

〈**인도기행**〉(샘터)도 불만하다. 부처님의 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인도인의 달관한 듯한 생사관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은이 법정스님은 인도를 다녀온 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양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온갖 모순과 갈등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을 것인지, 〈**마음 닦는 길**〉이 낱낱이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 지눌스님의 〈**수심결(修心訣)**〉을 강건기교수(전북대·철학)가 해박한 지식과 구도자적인 안목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달았다. 불일출판사 펴냄

경전읽기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입멸한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교법과 계율이 곧 너희들의 스승"(유교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경전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고 어느 경전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만다.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은 '부처님의 생애' '초기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어록'으로 내용을 나누고 각 경전의 가르침을 모아 묶었다. 곁에 두고 매일 읽으면 늘 출가와 열반정신을 익힐 수 있다. 〈정성운 기자〉

세속에 살아도 사홍서원 염원해야

한 생각 돌아서면 惡世도 보화궁전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용신안: 14461호
의장등록: 38353호



연등 초벌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용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종래방식



철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겉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인 후 건조

■홍법등

이중으로 겹어서 공급합니다 펼치면 팔각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팔각원통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웃어야 하는 이유 ③

돈으로 살 수 없는 약

웃음이라는 약은 돈주고 살 수 없지만, 그 효과는 어떤 처방 보다도 높습니다. 때로는 웃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이어서, 환자를 웃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 병자치고 잘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잘 웃는 사람치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이런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동시에 뇌의 신경계에 의해 촉발된 전자파동이 뇌수와 다른 인체부분들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천연 안정제와 진통제를 분비하도록 뇌에 명령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는 소화를 돕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동맥을 수축 이완시켜 피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비물은 고혈압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웃음만이 최상의 치료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웃음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웃음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명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산가족이 아니면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웃어야 하는 이유 ④

웃읍시다!

한 이름난 정신의학 교수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강의실의 앞자리는 우등생 전용석이고, 뒷자리는 낙제생 전용석이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관찰해 보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누가 말 안해도 앞자리에 앉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꼭 뒷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앞자리에 앉기 때문이요, 뒷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 역시 그가 뒷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환자 치고 웃는 얼굴이 없다고 합니다. 병실에 가보면 대부분 시무룩하거나 잔뜩 찌푸린 얼굴, 몹시 화가 난 표정들입니다.
실제 환자 중에 웃는 얼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 중에 우울하거나 짜증스런 얼굴을 짓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않기도 하겠지만, 게중에는 늘 찌푸려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읍시다!

웃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인산죽염된장

전화로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736-3171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

爲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⑤

聞聲見色 盖是尋常　　戀修齋戒 莫謾虧盈
문성견색 개시심상　　간수재계 막만휴유
遇境緣事 應用不親　　世世生生 殊勝因果
차변나변 응용불궐　　세세생생 수묘인과
如斯行止 實不枉被法服　　不可等閑過日 兀兀度時
여사행지 실불왕피법복　　불가등한과일 올올도시
亦乃辯護四恩 拔濟三有　　可惜光陰 不求升進
역내수보사은 발제삼유　　가석광음 불구승진
生生 若能不退 佛踏 決定可期　　徒消十方信施 亦乃孤負四恩
생생 약능불퇴 불계 결정가기　　도소시방신시 역내고부사은
往來 三界之資 出沒 爲他作則　　積累轉深 心難易難 墮途成滯 人所輕欺
왕래 삼계지빈 출몰 위타작칙　　적루전심 심진이응 촉도성체 인소경기
此之一學 最妙最玄 但辦肯心 必不相賺　　
차지일학 최묘최현 단판긍심 필부상잠

듣는 경계 보는 경계에 다 평상심으로 대해 흔들리지 않고
이 경계 저 경계에 오는대로 응하되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 것이니
이와같이 망념없이 행하면 참으로
그릇되지 않게 법복을 입는 것이니라
또한 이에 네가지 은혜를 갚고 삼계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할 것이며
세세생생에 물러나지 아니하면 결정코 성불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가고 옴에 삼계가 반기는 손님이 되고 나고 사라짐에 다른 이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찌 보지 못하는가. 소나무를 감고 오르는 칡은 위로 천길을 솟나니
수승한 설법인연에 의탁하면 바야흐로 널리 이익이 될 것이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닦아서 (부처님이 세밀히 일러주신 법도가) 이즈러지지 않게 할 지어다.
세세생생의 뛰어나고 오묘한 인과이니 (삭발염의하고 불제자 된것이 그러하다는 뜻)
헛되이 날을 보내고 올올이 (자리틀고 앉아 꼼짝 안하며) 시간 보내지 말라
가히 세월이 아깝거늘 마음 닦아 과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한갓 시방의 신심어린 시주물이나 소비하며 이에 또한 네가지 은혜만 신세 지겠는가
세월이 갈수록 쌓이고 깊어져 마음에 티끌만 꽉 들어차게 되며 와 닿는 경계마다 걸려 드는지라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바 로다.

"가고 옴에 삼계가 반기는 손님이 되고
나고 사라짐에 다른이 본보기가 되라"

이 한가지 배움이야말로 가장 묘하고 가장 깊으니 단지 즐거운 마음을 지녀라. 반드시 그대를 속이지 않으리라.

若有中流之士 未能頓超　　古云 彼旣丈夫 我亦爾 不應自輕而退屈
약유중류지사 미능돈초　　고운 피기장부 아역이 불응자경이퇴굴
且於敎法 留心 溫尋貝葉　　若不如此 徒在緇門 徃再一生 殊無所益
차어교법 유심 온심패엽　　약불여차 도재치문 임염일생 수무소익
稱搜義理 傳唱歌揚 接引後來 報佛恩德　　伏望 興決烈之志 開特達之懷
정수의리 전창부양 접인후래 보불은덕　　복망 흥결렬지지 개특달지회
時光亦不虛棄 必須以此 扶持　　擧措 看他上流 莫覺墮於庸鄙
시광역불허기 필수이차 부지　　거조 간타상류 막천수어용비
住止威儀 便是僧中法器
주지위의 변시승중법기

옛사람이 이르되, 「저(부처·조사)가 이미 대장부라, 나 또한 그러하니 마땅히 스스로를 업수이 여겨 물러서서는 안된다」 하였으니
만약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한낮 머리 깎고 먹물 옷 걸친 채로 일생을 그럭저럭 보내는 것이라 아무 이익이 될게 없다.제발 바라노니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통달하리라는 마음을 내되
수행 길에 나서서는 저 상근기를 불지언정 제멋대로 용렬한 부류들을 따르지 말지어다.

만일 중근기의 학인이 있어 몰록 (번뇌망상을) 뛰어 넘지 못할진대는
또한 교법에 마음을 두어 경전을 거듭 읽게 하되
믄자를 넘어 그 참뜻을 잘 살피게 하고 외어서 널리 펼치게 하여 후학들을 접인해 부처님의 (설법)은덕을 갚도록 할지어다.
(그렇게하면) 세월을 헛되이 버린게 아니니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불법을 받들어 지니면
행주좌와의 법도·위의가 곧 스님중에 스님다운 법기일 것이다.

今生 便須決斷 想料 不由別人　　
금생 변수결단 상료 불유별인　　
息意忘緣 不與諸塵作對　　
식의망연 불여제진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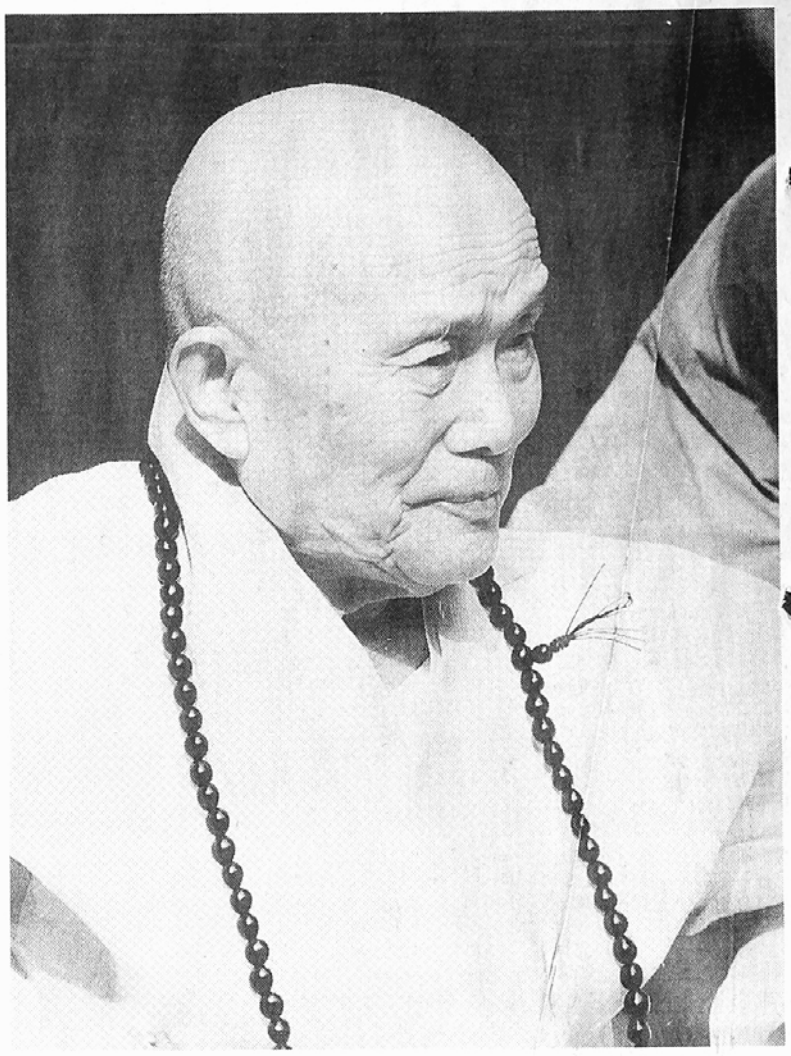
금생에 모름지기 결단하라. 생각컨대 (도란) 별난 사람을 말미암지 않는다.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쉬고 경계조차 잊어 번뇌망상을 일일이 상대하지 말라.

龍 眼

豈不見 倚松之葛 上聳千尋　　
기불견 기송지갈 상용천심　　
附託勝因 方能廣益　　
부탁승인 방능광익

★ 지 상 법 석

"생로병사 극복할



운경스님 〈봉선사 주지〉

약 력
- 1905. 10. 15 生
- 1925년 태오스님 은사로 득도
- 자재암, 홍룡사 주지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부처님의 출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부처님의 삶을 닮은 새로운 출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어느 시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 세월과 함께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인지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다가 영원한 자유를 얻기위해 출가란 일상의 규범을 벗어난 강한 의지의 삶을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생의 삶이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고통 많은 중생계에 살면서도 그 고통에 빠져 살지 않으려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애써 들인 공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 목적 해탈

내 마음은 그대로 고집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 편한대로 바뀌길 바란다면 헛되이 애만 쓰게 될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키면 큰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피력입니다.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가르침 믿고 실천하면 항상 광명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이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근원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진리는 부처님과 같이 특정인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도 갖추고 있는 참 모습인 진리 그대로의 완전 실현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주체적 실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의 원력 또한 불법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법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한것이 없고 중생이라 해서 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부처님과 다르겠습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보시고 진리 자체가 되어 진리 그대로 사셨지만 중생은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진리인지 모른채 살고 진리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푸른 하늘 가운데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같은 허공 속에 있어도 부처님은 자재한 삶, 중생들은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불법을 행해서 깨달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너의 자성을 깨달아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의 청정을 깨달으면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이요, 미혹하면 중생세계입니다. 스스로 망념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세계, 천상세계, 귀신세계, 물질세계가 일어나고 망념을 여의고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바로 생사를 해탈한 진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서 존재한다는 상의 상관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깨달아 가는 지성의 종교인 만큼 자칫 불교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선입견을 버리고 잘 들여다 보면 매우 조리있고 자연스럽게 정돈된 종교입니다. 마치 잘 정리된 실타래와 같아서 첫걸음을 정확하게 딛으면 무리없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參禪必念佛 참선이 곧 염불이요.
念佛卽參禪 염불이 곧 참선일세
本性無方便 본래 성품은 방편도 없는 것
昭性寂寂然가장 밝고도 고요하여라.

불교를 행하는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보다 알기 쉬운 불교, 보다 앞서가는 불교"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3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 종 사 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 전 개 설
	2학기	불 교 입 문	화 엄 사 상	밀 교 사 상	법 화 사 상	정 토 사 상
2학년	1학기	의 식 이 론	반 야 사 상	포교방법론	불 교 미 술	유 식 철 학
	2학기	의 식 실 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지상법석 ★

주체적 실현자는 바로 나"

"탐·진·치 버리고 마음 바르게하면 모든 괴로움 소멸되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공덕 찬탄 하며 선업 쌓아야

"염불 6도행 명심…진리가 내속에 있음을 확인하자"

중요한 방법으로 참선과 염불이 있습니다.

참선은 스스로 수행을 통하여 구경의 목적인 불과(佛果)를 얻는 자력주의(自力主義)이며 염불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 원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타력주의(他力主義)입니다.

수행방법이 여하튼 목표는 마음을 밝혀서 거울같이 맑은 심성의 본체를 깨달아 부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화엄경 십현담에 보면 마음을 넓게 열면 마음 밖에 따로 경계가 있을 수 없고 경계를 널리 펴면 또 경계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경계를 떠나서 있을 수 없으므로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맑혀 청정본성을 밝게 드러내고 부처님의 진리의 생명인 법성광명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부처님 진리의 무한한 지혜가 내 마음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한의 지혜 마음에

참선은 벌스러운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 오고 정신이 맑아져 매사에 판단도 맑게 되는 것이 바로 참선의 이치입니다.

평소 우리 마음은 탐, 진, 치 삼독의 그림자가 가려져 마음이 맑으면 마치 만상이 거울에 나타나는 그대로 순간순간 비추어 보이듯이 검은 것은 검게 하얀 것은 하얗게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옳게 비춰 주질 못하듯 마음의 삼독심을 제거하면 본래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심 염불하여 일념이 되고 다시 수행하여 무념경지에 이르러 염불하게 되면 마침내는 일체 경계가 끊어진 경지에 이르러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참선을 하여 견성성불한다는 것과 염불을 하여 그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이 각각 다른 길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한길인 셈입니다.

염불이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상호(相好)형상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기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닦아 몸(身)과 입(口)과 뜻(意) 삼업의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지혜와 광명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32상을 그리면서 염불을 한다면 중생은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불삼매에 들어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색신상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생각하면 능히 생각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불은 더러 그 뜻이 와전되어 입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의 이름을 부르거나 법당에서 스님들이 독경하는 것만을 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살과 진언을 입으로만 외우며 삼매에 드는 그 자체도 염불이지만 염불의 본뜻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그 공덕을 생각하며 선업을 쌓으므로 하여 그 인(因)의 씨앗이 극락정토에 또는 이 사바세계에 떨어져 다시 하나의 연(緣)으로써 왕생, 내생의 결과와 같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잡아함경에 염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였습니다.

"성인의 제자는 여래의 일을 염(念)하라. 여래는 응공(應供)등정각(等正覺)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를 염할 때는 탐욕에 얽힘을 일으키지 않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여래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 여래의 뜻을 얻는다. 여래는 바른 법을 위하여 여래가 있는 곳에 항상 기쁜 마음을 얻도록 하여주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즐거워하면 몸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다. 따라서 그 편한몸으로써 그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면 몸은 그 모든 장애없이 법의 흐름에 들어서 열반에 이르지 아니 함이 없다.

이처럼 부처님을 생각하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 절실한 공양을

자력(自力) 자각(自覺)의 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타력이행의 정토문(他力易行淨土門)인 염불을 주장하는가? 간혹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미혹 중생은 업장이 무거워서 자력으로 대각성불이나 왕생극락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수승하고 자비가 많은 불보살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 결 용이해 지는 것입니다.

萬緣都放下 온갖 인연 모두 놓아 버리고
常念觀世音 오로지 관세음만을 생각한다면
此是如來禪 이것이 곧 여래선이요
亦爲祖師禪 또한 조사선이 되느니라.

염불에도 보살 육도행의 공과(功果)가 있으니 순일한 마음과 착실한 뜻으로 생각함이 보시행이요, 간절히 염하여 탐함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이 지계행이요, 염불정진하는 사람과 그 차이를 따지지 않음이 인욕행이요, 견고한 일심으로 염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정진행이요, 마음이 안정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선정행이요, 마음과 아는 것이 분명한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법을 맑게 볼 수 있게 염불함이 지혜행입니다.

모든 일에 그나름대로 처방이 있듯이 염불을 하는데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중히 예배하며 부처님의 대비광명과 원만구족함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禪)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중에 아홉사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선은 없으나 정토가 있으면 만 사람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모두 갈 수 있다"고 영명연수 선사도 말씀하셨습니다.

근기따라 중생들이 불도를 구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하고 넓은 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예경하고 염송하여 부처님의 진리공덕이 자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불자의 일상생활의 기본입니다.

요즘 젊은 불자들은 법당에 부처님께 참배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양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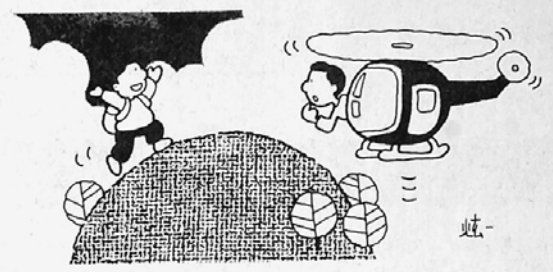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절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시봉하는 일입니다.

경전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참불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자는 소박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신심 깊은 불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순수하게 살면 길이 열리며 그 부처님은 어느 타방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 안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내 생명에 흐르는 부처님의 자비의 화현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는 생명이라고 믿고 의지합시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불하고 공양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⑱

진리에 세우는 이정표

합리적 방법으로 佛法검증하긴 우리 선각자들 깨달음 과학업적보다 넓어

오늘날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 혁명에서 시작하여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초 과학은 소립자의 극미의 세계에서 우주 저쪽의 극대의 세계에 이르기 까지 인간 지식의 지평을 넓혀놓았다. 러셀이 이야기했듯이 철학이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종교적 윤리적 견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 혹은 철학은 자연 과학이 이해하는 세계상과 자연 과학이 제공하는 삶의 기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철학이 자연과학을 포함하던 시기가 있었듯이, 철학이나 세계관과 자연 과학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과학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 삶은 물론이고 그 정신적 기반까지도 과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갈릴레이의 자동설과, 마젤란의 항해, 다윈의 진화론 등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화가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상에 젖어있던 서구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뉴턴은 과학을 이용하여 신의 존재 혹은 신의 섭리를 증명하려고 하였고, 엥겔스는 '자연 변증론'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법칙이 자연 과학과 같은 견고한 기반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자연의 이해에 기반하여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뉴턴과 엥겔스 시대의 미숙한 자연상이 아닌 현대의 성숙한 자연 과학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자원이 서구 문명에 대해 반성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점에서 과학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불교적 세계상이 의미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불교의 세계관은 과거의 철학이나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달리 현대 과학의 제성과와 놀라운 정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는 서구 문명이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비판을 과학 문명에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문화가 만나 융합되면 엄청난 문화적 잠재력이 표출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따라서 동양의 위대한 정신적 문화 유산인 불교와 서양의 과학 문명을 융합시킨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해야할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 작업은 불교적 가치관으로 서구 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무의식중에 갖는 편견을 그대로 간직하는 한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이 편견이란 과학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연유한다.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작업을 전적으로 합리적 체계인 과학을 이용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불교를 증명하려는 것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차라리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안하느니만 못하다. 사실 과학과 불교는 그 자체로서 서로 연관이 없으며, 마치 방법을 달리하여 산을 오르는 두 사람과 같은 것인지 모른다. 헬기를 타고 산정상에 내린 한 사람과 한 걸음씩 걸어서 정상에 도달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두 사람이 지나온 길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자신들의 과거 역사와는 상관없이, 서로 같은 장소에 서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두 번째 사람이 파악하는 세계는 첫번째 사람이 파악하는 세계에 훨씬 못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걸어올라가는 사람의 눈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경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언젠가 그 산에 올랐다는 사람이 전해주었던 그 모습이었다. 아직 그 소식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고, 그것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선각자가 깨달았던 소식, 그 2천5백년을 전승되어온 빛나는 진리를 자연 과학이란 방식으로 한 걸음씩 땅만보고 걸어온 전혀 다른 발걸음이 이제 약간이나마 파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학의 업적은 선각자들의 깨달음만큼 포괄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안심하며 안주해서는 안된다. 불교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하여, 인류 구원의 대승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이것은 또한 서구에 진 과학문명의 빚을 동양이 정신으로 갚는 길이 될 것이다.

양 형 진(楊亨鎭)



· 서울대 물리학과 졸
· 미 인디아나대학 물리학과 박사
· 미 신시내티대학 연구원
· 현재 고려대 물리학과 조교수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3月 / 9, 14, 16, 21, 23, 28, 30 4月 / 4, 6, 11, 13, 18, 20, 26, 27

대만 5日 ₩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3月 / 15, 22, 29 4月 / 5, 12, 19, 26
스리랑카 6日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덤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3月 / 10, 17, 24, 31 4月 / 7, 14, 21, 28
미얀마·태국 8日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3月 / 10, 17, 24, 31 4月 / 7, 14, 21, 28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月 /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4月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방콕·푸켓 5日 ₩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月 / 11, 18, 25 4月 / 5, 12, 19, 26
동남아 3국 5日 ₩ 590,000	서울-쿠알라룸푸르(1박)-싱가폴(2박)-바탐(관광)-기내(1박)	3月 / 8, 15, 22, 29 4月 / 5, 12, 19, 26
방콕·푸켓·싱가폴 6日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3月 / 14, 21, 28 4月 / 4, 11, 18, 25
하와이 5日 ₩ 649,000(일급) ₩ 699,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月 /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4月 / 1, 2, 5, 6, 8,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동경·하꼬네 4日 ₩ 945,000	서울-동경(2박)-하꼬네(1박)-서울	3月 / 9, 16, 23, 30 4月 / 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月 / 9, 16, 23, 30 4月 / 4, 6, 11, 13, 18, 20, 25, 27
사이판 4日 ₩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月 / 9, 12, 16, 19, 23, 26, 30 4月 / 2, 6, 9, 13, 16, 20, 23, 27, 30
괌 4日 ₩ 549,000	서울-괌(3박)-서울	3月 / 9, 12, 16, 19, 23, 26, 30 4月 / 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뉴질랜드 8日 ₩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3月 / 9, 14, 16, 21, 23 4月 / 1, 2, 4, 6, 8, 9, 11,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日	—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 649,000(일급) — ₩ 699,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 ₩ 860,000
	6日	— ₩ 89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고은 불교 대하소설



19

구인회상(九人會上)

아직도 태풍의 뒤끝이 남아 있는지 바다는 불면증 환자처럼 뒤척였다. 이제 이곳의 사람은 일곱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또 한번 여러 척의 선단(船團) 가운데서 슬그머니 한 척이 뒤쳐지다가 이 섬 뒤에 숨어든 것이다. 수부(水夫) 두 사람은 워낙 바다의 큰 풍랑에 단련된 목숨이어서인지 이 섬이 마치 아늑한 집으로 돌아온 줄 착각하기까지 하였다.

한 사람은 박가이고 한 사람은 장가였다. 우녀가 인담에게 그들의 법명(法名)을 부탁하였다.

"아직 마음에도 없을터인데…"

"그 마음 이전에 대고 지어주세요"

라는 우녀의 말은 칼끝처럼 예리하였다.

인담이 입 안에 삼킬 것이 있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더니

"수원(水圓)과 수월(水月)로 부르도록 하기로…"

그때 우녀가 두 장정이 기대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당신들은 이번에 죽은 목숨이오. 여기를 이승이 아니라 저승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저승일진대 이곳 저승의 법에 따라 이제부터 당신들은 수행의 몸을 받은 것이오. 그래서 당신들의 이름이 수원이고 수월이오…. 두 이름 중에 하나를 가지시오. 하나는 동방의 아촉불을 향하고 하나는 서방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향하게 될 것이오. 그러기 위해서 1천나라 10만억나라를 더 나고 죽어가며 지나가야 할 것이오…"

"…"

"우선은 이 무욕도 소나무 위에 올라가 새 둥지나 틀기 바라오"

"?"

"날마다 오후에 올라가 거기 앉을 자리를 만들어 앉은뱅이가 되라는 뜻이오"

이렇게 두 사람을 마구 다그치자 그들은 팽팽한 햇볕에 드러난 누에처럼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 한 사람이 수원이 되고 한 사람이 수월이 되어버린 것이다. 금생(今生)이라는 것이 이렇듯이 전생(前生)에 대한 무력(無力)이란 말인가.

남처사가 그들의 망가진 상투머리를 삭도(削刀)로 밀어서 민둥대가리를 만들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두 사람은 어이없이 서로 삭발 뒤의 얼굴을 마주 보며 큽내 쓴 웃음을 주고받았다.

이제 우녀는 무욕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의 말 한 마디가 엄연한 계율이 되는 것이었다. 정작 인담은 그런 우녀를 보필하는 역할 밖에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퇴화(退化)된 먼 옛날의 큰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이마에 주름이 생겨났고 혼자 이 섬에서 살아갈 때의 그 의연한 기상이 없어진채 부쩍 늙어있었다.

어쨌거나 이제 아홉사람의 섬이 되었다. 만화는 서산이나 안면도에 자주 배를 저어 나가야 하였다. 그의 익숙한 배 수선으로 배 세척이 그런대로 탈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인즉 난파선의 선창 안에는 살아난 두 사람에 의해서 잘 감추어둔 고려청자와 조선 중기의 백자 그리고 청나라 복주(福州)에서 만든 비싼 물건들을 꺼내게 되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조선의 엄전 꾸러미 여러몽치와 청나라 주화(鑄貨)와 은괴(銀塊)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무욕도는 먹을 것을 걱정하는 궁핍의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없는 대신인지 다른 일들이 생겨나서 섬의 단조로운 일상에 이따금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바로 어리굴개펄 넘어에 있는 마을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縣)의 형방(刑房)에서 포졸이 건너오는 일도 있었다.

둘이 왔다가 아홉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슬그머니 겁을 내는 것이었다.

"이런 무인도에 웬 사람들인가? 혹시 여기다 별세계(別世界)를 만들어 본토(本土)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노골적인 심문까지 하였다.

우녀가 나섰다. "이곳은 홍길동(洪吉童)의 나라도 아니고 허균(許筠)선생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주저앉아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법(佛法)을 고즈넉히 지켜나가는 것 뿐입니다. 고을에서 나온 분들께서도 혹시 복을 빌고자 하시거든 이곳 청정한 수행처에 그 복의 소원을 말기시지요"

그녀의 말에 두 포졸은 그냥 봄날에 날리다 녹아버리는 눈발에 지나지 않았다.

"행여 딴 생각들은 내지 마오… 그런데 이곳에 어리굴나루 이웃마을인 새놀에서 건너온 청상과부는 없오?"

인담의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그 질문도 우녀가 맞받았다.

"얼마전에 물 위에 뜬 무명치마자락 나부랑이가 떠다녔지요. 용궁(龍宮)에 내려가 살겠지요, 아마도"

"물귀신이 되었다 그 말이군"

"나무아미타불"



그림 · 조향숙

"그만 건너가보세… 여기 백일을 있어보아야 뽕나무에서 오디 하나 따먹을 것이 없군"

그때였다. 우녀가 인담이 시켜서 엽전 한 냥(兩)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건너가서… 요기라도 하시구려. 이것은 우리가 탁발(托鉢)해서 얻어둔 것이라오"

"허어 눈 하나가 떠지는군… 고마우이… 그러면 우리는 가오. 앞으로 이곳에 청나라 수적(水賊)의 황당선(荒唐船)이나 왜놈들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시게… 우리 고을에서는 이 수역(水域)의 사정에 특별히 경계하고 있은 즉"

두 사람의 포졸이 탄 낙배가 섬에서 떠나간 뒤 섬에서는 새로 갈대정사(精舍)를 짓기 시작하였다. 두 채를 더 짓기로 한 것이다. 산꼭대기 움막과 기왕의 암자까지 손꼽자면 네채가 되는 것이었다. 만화와 남처사 그리고 수원들은 워낙 배 수선에 익숙한 솜씨라 소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담가두었다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일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김장하면 눈 오고 집 지으면 임이 오지라는 농담이 곰보처사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젊은 미모의 과부 출신인 함두는 거의 핼쓱한 안색이었으나 후원의 작무(作務)에 부지런해서 밖의 일을 통 모르는 정도였다.

우녀가 그런 함두에게 일렀다.

"공부 따로 있고 이런 부엌 일 따로 있다면 그것은 이 도량의 일이 아니네"

언제 이같은 말을 척척 할 수 있는 도량 공부를 한 우녀였던가. 우녀는 가령 사흘 동안이 삼년의 수행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긴 시간의 천부적인 수행자였다.

인담이 그런 우녀를 행자(行者)로만 있게 하기가 거북해서 우선 소승(小乘)의 계(戒)를 받아 사미니(沙彌尼)가 되도록 은근히 권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대로의 무욕도 행자가 좋습니다. 먼 장래에도 수미행자(須彌行者)일 따름일테니…"

태풍의 하룻밤과 그 뒤끝이 가라앉은 뒤 어느덧 한달 가까이 지나갔다.

인담 혼자서의 섬은 시간이 길었으나 그 시간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탓인지 시간의 속도가 실로 빨랐다. 그렇다면 시간은 시간이기보다 마음에 다름 아니다.

과연 유마(維摩)는 번뇌를 버리지 않은 채 열반(涅槃)에 들어가고 천녀(天女)는 마계(魔界)를 벗어나지 않고 불계(佛界)에 들어갔다면 그 유마와 천녀가 열반과 불계에 드는 시간도 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 천녀가 바로 이곳의 우녀의 전신(前身)인가. 이곳 우녀가 그 천녀의 후신인가.

인담이 승조(僧肇)의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 한 구절을 영영 잊어버리고만 곳에서 문득 발가락을 찌르는 새금파리처럼 떠올린 것은 그가 유마의 지경에 뜻을 두기 시작한 까닭인지도 모른다. 사실인즉 그는 얼마전부터 승려이기보다 머리 기르는 거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머리를 깎은 출가승(出家僧)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거사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하심(下心)의 세계에 살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 생각은 생각 뿐이 아니라 새벽 꿈속에서도 그 자신이 숲 속으로 들어가 땔감의 일을 하며 「서하문집」이나 뒤적이는 한동안이 있었다.

이 무욕도를 개척한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은 체념이 우녀의 헤아릴 수 없는 정신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데리고 온 실성한 낭자가 알고본즉 관음(觀音) 후신인가. 천녀의 후신인가'

그는 우녀를 생각하노라면 새삼 그녀의 진정한 권위를 쉽게 짐작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녀에 대한 끝내 표현할 수 없는 사모의 정으로 되는지 몰랐다.

지혜와 애욕을 함께 누릴만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함께 사는데도 천리 만리를 떨어져 있는 먼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인담은 그런 한 가닥 갈등을 임춘의 시 '꿈에 읊조리다(詠夢)'에 빗대어 보기도 하였다.

게으른 이 몸 흔히 봄날에 취하는데
꿈이 자주 규방의 베개맡을 찾누나
시 짓는 자리 서늘한 밤 이따금 바라볼 때
노래하는 누각 해 저물어 술이 거나했을때
깨고나면 한바탕 인생에 견줄까
멀리 천리밖에 이별의 한도 전하누나
세상 일 던져두고 시름 잊었으니
이즘에 늘 감도는 곳은 내 고향산천인 것을
(疎慵多是泥春天 夢到香閨玉枕前
詩欄夜涼風露續 唱樓日晏酒尊傳
一場曾把浮生比 千里長將別恨傳
更爲等閑拋世慮 近來還繞故山川)

"여기 살러 왔소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상전을 모신 하인배임에 틀림없었다 "누굴까"

'내가 데리고 온 실성한 낭자가 알고본즉 관음의 후신인가 천녀의 후신인가' 인담은 표현할 수 없는 사모의 정을…

그런데 깊은 밤 기러기떼 지나가며 떨어뜨리는 울음소리가 유난스러웠던 어느 늦가을 추운 물결 위로 돛 폭을 내린 배가 저어와 섬에 닿았다.

"여기 살러 왔소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상전(上典)을 모신 하인배임에 틀림없었다.

"누굴까?"하고 인담이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내리면서 가지고 온 짐도 내려졌다. 배는 조용히 떠났다.

"어서 오시지요"

라고 인담이 그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여기까지 뜻을 세워 건너온 사람에게 "왜 이곳에 왔오?"하고 묻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차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이마에 관(冠)을 썼던 자국이 패어있었으나 사대부(士大夫)의 신분에만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숙종조 갑오년 조선 8도 전역에 일어난 지진(地震) 이래 세상의 권세를 갑자기 헛된 것으로 여겨오던 김창협(金昌協)의 서얼 종무(鐘武)인줄 아무도 몰랐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숨어버려서 은급제(隱及弟)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인 줄도 몰라야 하였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 718-0973~4 • 호출기 : (015)305-3933 • 담당자 : 이 계 천

연등에도 '현대화' 바람

철사·풀 사용않은 홍법등 환경보호 동참

가정선 종이컵 재활용…광섬유 燈도 등장



◇ 홍법등, 광섬유 연등, 장식용 소형연등등 다양한 연등이 선보이고 있다.

사월 초파일을 한달남짓 앞두고 빈녀일등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마음속의 불성을 낚혀줄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불교용품점에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꽃모양의 연등, 팔정도를 상징하는 팔각등, 주름등을 비롯 환경보호를 고려해 제작된 등과 첨단기술과 예술성을 융합시킨 광섬유 연등등 새롭게 시도되는 연등들이 다양하게 나와있다. 이 등들은 종이, 천, 비닐, 고무, 플라스틱, 광섬유등 재질과 모양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게 전달되며 완제품과 조립제품으로 나눠져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연등으로 부처님 오신뜻을 더욱 닦고 깨끗하게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철사와 풀 없이 한번에 완성되는 홍법등을 고안한 홍법기획의 김성수사장은 "순수 천연펄프를 사용 재사용과 재처리를 용이하게 해 환경과 자원, 사용자의 편리까지를 고려했다"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자부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도 매년 봉행되는 봉축행사 등의 제작과 사용후 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며 환경보호에 불교계가 더욱 적극동참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사찰에 발송하기도 했다.

환경보호적인 측면과 함께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한 등도 선보이고 있다.

94년 봄부터 소개된 광섬유 연등이 바로 그것. 성화무역 작가인 박인숙씨가 제작한 광섬유연등은 기본연등모양에 꽃잎이 어우러져 5~7가지 색의 빛이 교차로 발한다. 현재 의장등록 및 특허권을 획득한 이 광섬유연등은 가정불단을 꾸미거나 장식용으로 주문제작되는데 가격이 30만원이상으로 일반연등에 비해 비싸 대중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장식성을 가미한 작은 모형연등, 연꽃위에 동자가 합장한 모습의 동자연등, 연등열쇠고리 등 자동차나 가정의 장식용 연등도 관매중이다.

가정에서도 종이컵등 재활용품을 모아 가족이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컵연등을 만들고 등불공양의 의미를 나누기도 한다.

"종이컵으로 연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고 말하는 한지원(서울 보문국교 3)어린이는 "부처님오신날에 제가 만든 연등에 불을 밝혀 어머니와 함께 제등행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어요"라면서 흐뭇해 하기도. 불교의 현대화와 함께 연등의 모양과 패턴도 조금씩 변화를 맞고 있다.

불자들은 전통불교의 바탕위에 현대적 미적 감각과 환경보호등 현실적 문제점을 개설한 새롭고 다양한 등의 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등의 종류와 모습은 달라도 무명을 밝히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등 밝히는 그 마음은 언제나 한가지여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자 기자〉

사회 복지관		진료 내용	전 화
서울	본동	소아과, 내과	02)817-8052
	삼전	물리치료	02)421-6077
	길음	한방, 내과	02)985-0161
경상	개금	내과, 외과, 관절, 신경통	051)893-5034
	중리	한방, 소아과, 안과, 치과외	051) 52-8017
전라	송광	관절교정, 물리치료, 수지침	062)941-8248
	우산	내과, 관절교정, 지압	062)266-3853
	문수	내과, 물리치료	0662)652-4242
충청	법동	한방, 침술, 안마, 물리치료	042)633-1141
	금강	한방, 내과, 물리치료	0461)856-5634
강원	명륜	내과, 한방	0371)762-8131
	속초	내과, 물리치료, 지압	0392) 34-7017
	삼척	물리치료	0397) 73-6168

합동복지관, 강릉복지관, 생활불교회관 등 그외복지관 비정기적 무료진료실시

복지관 무료진료 주민 "발길"

경남 창원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연일 무료진료를 받기위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는 한방진료와 피부비뇨기과 진료·둘째주 일요일은 치과진료·셋째주 토요일은 소아과진료·넷째주 일요일엔 안과진료를 그리고 분기별로 종합검진도 시행한다.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스님)도 매주 월요일마다 한방진료를 금요일에는 지압·안마시술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치료와 건강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호응속에 지역병원과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진료는 복지관의 중요한 지역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이들 무료진료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등을 주대상으로 기본적인 일차진료를 실시하며 무료로 약을 조제해 주기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가정방문 치료를 하기도 한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박현숙복지사는 "92년 개관이후부터 연세대 원주의대와 원주간호전문대 상지대 한의과 학생과 교수들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다"면서 "무료진료의 실시로 주민들의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어 보람을 느낀다"고.

무료검진외에도 복지관중에는 상설의료진료소 운영, 지압·안마서비스, 뼈·척추교정, 건강상담교실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복지관의 무료진료는 주민들에게 쉽고, 가깝게, 그리고 경제적부담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정밀한 치료서비스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은〉

만 화



이른후 건강칼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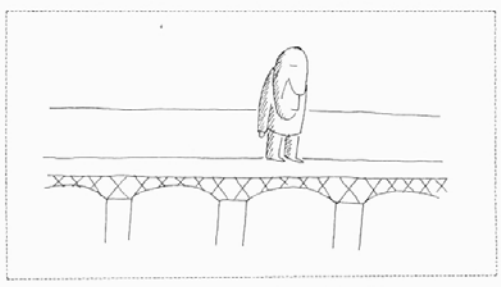
자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한 살생

너, 그런데 내가 연못에 손을 담구어 보았더니 차가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뭇소의 말인즉 죽고 싶었으나 물에 빠지면 물이 차가울테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목을 매어 죽고 싶어도 숨이 답답할 것 같아 못죽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듣기에 따라서는 재치있는 말로도 들리지만 사람의 밑바탕을 뒤집어 보인 말과도 같아 재미있다.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는 두가지를 대비시켜 생각한 것들이 많다. 가령 프로이드라는 발군의 정신분석학자는 무의식과 의식을 구분하면서 무의식 속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죽음과 삶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상반된 것이라기 보단 연속선상에 놓고 보는 조화로 설명했다.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으로 겉으로는 구분되지만 기실은 죽음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죽음으로 연관되는 상호성을 강조한데서 불교의 본능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 가운데 자살의 이유를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증명한 논문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이 없는 곳으로 멀리 피해 갈 것만 같은데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어릴때 예방주사를 맞아본 경험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모두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었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났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주사도 먼저 맞으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의문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사의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앞당겨 세치기하는 행동양식이라는 설명이다. 차례를 기다릴 만큼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니 스스로 앞당겨 목숨을 끊음으로써 발등에 떨어졌던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리석음이라 하겠다. 백유경에 나오는 눈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다.

눈병을 앓는 여인을 본 친구가 자신도 친구처럼 눈병이 나서 고통스러울까 두려워 눈을 뽑아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남을 죽이면 살인이 된다. 살인을 자신에게로 내재화시키면 그게 바로 자살이 되는 것이다. 살생을 말라고 했는데 가장 존귀한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 확실한 살생이다.

불교성지순례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부처님고행상)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출 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협찬 : 대한항공

티벳·네팔 10일

· 출 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 출 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과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 발 : 3월 24일,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 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작년 불서신간 301종

전년비해 50%증가…경전류 24%차지

분야별 다양화·한글대장경간행 "눈길"

94년 불서출판 신간발행량은 301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3년 발행량 200여종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분량으로 불서출판의 분야별 다양화, 동국역경원의 본격적인 역경사업 추진, 민족사의 경전시리즈 등 기획출판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301종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종수를 나타낸 분야는 경전으로 72종을 펴내 전체발행량의 2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선어록·수상록(40종) 법어·어록(32종) 불교문학(30종) 선·명상·수행기(18종)의 순이었다.〈표 참조〉 불교학 연구분야와 관련있는 불교사상·철학분야는 14종에 물렀으며, 그나마도 번역불서가 8종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출판문화협회 납본자료와 불서총판 운주사에 입고된 신간불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비매품은 서점을 통한 대중유통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경전 가운데 금강경 법화경의 번역 및 해설서가 각각 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율장분야도 4종이나 되었다. 경전류 출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 불서출판인들은 "불자들의 경전선호도가 높아 상업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며, 경전 간행을 의미있게 여기는 출판인의 의식에서 연유한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불서를 펴낸 출판사는 모두 129개사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불서를 펴낸 곳은 동국역경원으로 19종을 기록했다. 이어서 불교시대사 15종, 민족사 12종, 우리출판사가 11종, 교림출판사 8종, 불교영상회보사 7종, 대원사 6종, 대원정사 불지사 밀알출판사 5종의 순서를 보였다. 불서전문출판사 11곳이 전체 발행종수의 36.8%를 펴내 일반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출판물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책의 정가는 평균 7,945원으로 일반출판물의 평균정가 8,185원(94 출협통계)보다 조금 낮았다. 평균정가가 1만원이 넘는 분야는 경전(11,027원)과 사진집(15,671원)이었다. 면수는 평균 313면으로 일반출판물의 267면보다 두꺼웠다.

번역불서는 35종(경전 및 국내저작중 한문원서는 제외)으로 전체종수에서 11.6%를 차지했다. 번역물 가운데는 일본불서가 12종으로 가장 많아 불교학 수입의 일본치중도를 보여주었다. 분야별로는 불교사상·철학, 불교사, 법어·어록 등에서 번역물이 현저히 많았다. 특히 라즈니쉬 번역이 6종이나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사찰·문화답사기가 15종이나 나와 문화답사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어린이불서도 14종이 발행됐다. 그러나 포교자료 및 불자들의 일상생활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식 관련 불서는 아예 외면되거나 3종 발간에 머물렀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불서출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분야별 발행종수

분 류	종 수
경 전	72
석가불·입문·교리	18
전 기	13
선·명상 수행기	18
법어·어록	32
불교사상·철학	14
불교문학(설화 포함)	30
불 교 사	11
원시불교	3
어 린 이	14
신앙록·수상록	40
사찰·문화답사기	15
불교의식	6
불교미술·사진	7
사전·건강·기타	8
계	301

출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행량은 29,564종이다. 종교분야는 1,941종으로 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며 나머지는 개신교 천주교 등 기독교계 출판물이 차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한암스님 문집

'만고심월' 4월말 발간

'승가 5칙' '선원규례' 등 첫공개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암스님(1876~1951)의 법어와 게송 서간문 등을 묶은 문집〈만고심월(萬古心月, 가제)〉이 4월말 민족사에서 발간된다. 한암스님 문집은 지난 90년 통도사 극락암 명정스님에 의해 〈한암집〉으로 출간됐었다.

이번 문집에는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승가 5칙' '선원규례' '직절법문' '참선곡' '선문답 21조' 등을 실어 한암스님의 사상과 참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대할 수 있게 했다. '승가 5칙'은 교시적 성격을 띤 법어로 올바른 승가상을 제시한 제2의 백장청규로 일컬어진다. '선문답 21조'는 금강산 만일암 초대조실로 추대되어 결제정진중 대중의 질문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암스님의 선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집간행위원장 혜거스님(금강선원장)은 "문집을 편찬하고자 스님의 문장을 다방면으로 수소문하고 또 현장을 찾아 영세한 단편을 모으고 살아계신 원로스님들의 증언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집간행위원회는 〈만고심월〉 출판기념회를 한암스님의 탄생일인 5월 11일 개최키로 했다.

한암스님은 1925년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한 이래 27년간 일체의 외부출입을 금하고 오직 수행정진과 후진양성에 전력하였으며, 통도사 혜련, 유점사 동산스님 등의 대강백과 선교를 겸한 탄허스님 같은 대선지식을 길러냈다. 1936년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명사추천 불서100선

본생경



신 현 득
〈아동문학가〉

팔만대장경은 종교요, 철학이요, 교육이요, 과학이요, 문학이다. 인류의 문화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고전은 없다. 나는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동화의 바다'로 정의하고 싶다. 자주 주장하는 바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동화를 많이 들려 주신 이야기 할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세계 최초의 아동문학가(동화작가)가 부처님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불교동화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처님은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어서 그 갚음으로 부처를 이루셨다. 필부로 인도환생(人道還生)하기도 어려운데 부처로 이 세상에 오시자면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항하사겁에 걸친 공덕이었을 것이다. 경전에는 이러한 전생이야기가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佛說로 기록되어 있다.부처님은 雪山의 구법동자로 하나의 게송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던지는가 하면, 배고픈 호랑이의 주림을 가엽게 여겨 호랑이 입에 뛰어든다.

이러한 희생공덕은 수많은 인간의 왕·왕자·대신·수행자로도 이루어졌지만 사자의 왕·코끼리의 왕·사슴의 왕·원숭이의 왕·거북의 왕·앵무새의 왕·메추리의 왕…등 수많은 동물의 왕으로 전생을 사시면서 이루어졌다. 불교동화에 동물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팔만대장경에서 이러한 본생담을 바탕으로 한 것이 본연부의 수많은 경전이다. 그 중에는 아주 동화집으로만 되어 있는 설화경전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불설동화집이다.

그 중에서도 547화의 동화를 엮은 본생경(Jataka)은 BC 4세기에 이루어진 세계최초의 동화집이므로 불교인은 물론 특히 아동문학인은 누구나 읽어야 할 고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Jataka에 대해 최초의 연구를 시작한 학자는 신문학의 효시를 이룬 육당이었다. 그는 1927년 동아일보에 22개 항목으로 연재한 설화론에서 토끼전(별주부전)의 근원이 본생경에서 왔음을 말하고, 본생경이 한국의 民話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였다. 나아가서 세계설화인도기원론을 주창한 이도 육당이었다.

요즘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장 이야기'는 說話經典인 염노국경 그대로이며, 우리 나라의 민화에 있는 수많은 지혜 이야기(구부러진 구슬구멍에 실 꿰기, 나무도막의 上下 구분, 똑같은 말을 두고 어미와 새끼구별, 재로 새끼 꼬기, 새끼 밴 황소 구하기…등)는 염노국경 외에 경명왕경 등에서 온 것이다.

본생경 546화 '대수도의 전생 이야기'는 이러한 지혜 이야기의 단편집인데 어쩌면 우리 민화와 이렇게도 같을까 하고 놀라게 된다.

전술한 바 '별주부전(토끼전)'은 본생경 208화·342화 등에서 온 것이다. 원숭이, 악어 사이의 이야기가 토끼와 자라 사이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옹고집전'의 원류는 본생경 78화와 450화·535화 등이고 국민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동물의 나이 자랑(두껍전)'도 본생경에서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솝이야기로 믿고 있는 상당량의 설화들이 불설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본생경을 설화의 고전으로, 우리 민화의 뿌리를 찾는 입장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佛說로 엮은 세계최초 동화집

별주부전등 한국민화의 원류

화제의 책

신라선종의 연구

성 본 지음



〈신라선종의 연구〉는 신라시대에 전래된 선사상과 신라후대에 형성된 구산선문 및 기타 선문의 개창과 그 사상적 경향을 연구한 학술서. 신라초기 선 전래에서부터 구산선문을 비롯하여 정중무상의 선사상, 위앙종 계통의 오관산(五冠山)의 요오순지(了悟順之)의 선사상, 그리고 신라후대 선종의 사회경제적 기반 및 지역적 분포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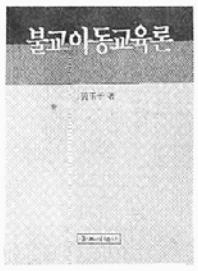
특히 육조혜능의 머리를 지리산 쌍계사 육조정상탑에 모셨다는 이른바 육조정상동래연기(六祖頂相東來緣起)와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에 대해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창안된 허구라는 점을 자료검증과 합리적인 논리전개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진귀조사설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미진하여 다시 설산으로 진귀조사를 찾아가 조사선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교에 비교해 선의 우월을 강조한 것이다.

〈민족사, 1만2천원〉

구산 선문 개창·禪사상흐름 조명

불교아동 교육론

황옥자 지음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증가와 불교유아교육에 관한 관심 및 학문적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계자료와 문헌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적절한 전문도서가 부족한 현실이었다. 〈불교아동교육론〉은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서로, 불교경전에 나타나는 아동교육에 관한 교설을 중심으로 불교유아교육의 이론을 정립하고 미래 유아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 1~3장은 불교유아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불교의 전통아동관, 불교유아교육의 개념·목적 등을 실었다. 4.5장에는 태아기에서 유아기에 이르는 불교교육의 이론들을 마련하고, 실제 교육활동에서의 적용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아교사론 부모교육 교육활동계획 및 평가 등 교육현장의 내용들을 담았다.

〈불교시대사, 7천원〉

경전에 나타난 유아교육이론 정립

새로나온 책

▲불교이야기(지묵 지음)=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지도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펼쳐온 지묵스님의 절성활및 살아가는 이야기. 교계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글을 묶은 것으로, 불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딱딱한 교리문답서 형식을 벗어나 대화를 나누듯 편안하게 서술했다. 〈우리출판사, 5천6백원〉

▲나무를 심듯 원력을 심으며(서강 지음)=지은이의 방송원고와 신문 잡지에 실었던 글들을 모은 수상집. 날카롭고 정확한 세태읽기를 통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여래, 4천5백원〉

▲선의 산책(조벽산 지음)=수선회와 삼불회 등에서 행한 신심명 증도가 반야심경 금강경 등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선입문서. 특히 금강경의 근본사상이 선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폈다. 〈흥법원, 6천원〉

▲사람들 사이에 부처가 있다(김정강 지음)=가장 가까운 곳에서 석용산스님을 수행해온 지은이의 에세이집. 불교경전 속에 스며있는 삶의 지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출간돼 밀리언셀러가 된 〈여보게, 저 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출간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려원, 6천원〉

올 서울국제도서전 불서 1천종 출품

불서출판협의회(회장 원택)는 오는 5월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5 서울국제도서전'에 1천여종의 불서를 출품, 전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출협은 5개 부스를 확보, 종합전시키로 하고 25개 회원사에 5월 10일까지 출품불서를 선정해주도록 했다. 한편 대원사는 종합전시와는 별도로 3개의 부스를 출판문화협회에 신청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불출협은 지난해 운주사에서 제작한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보완, 제작해 전시기간중 3천부를 무료배포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최하고 문체부와 전국서점조합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도서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6백여 출판사의 책 3만여종이 전시된다. 외국출판사는 일본의 고단샤(講談社), 미국의 이스트우드 등 30여개사가 참가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 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출판부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3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 타	효 림
4	선체조 108	혜 원	가람기획
5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모치즈키 신코	불교시대사
6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 재 웅	용 화
7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박광서 외	정 토
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능엄경	김 재 두	민 족 사
10	연꽃만화	장 지 연	부다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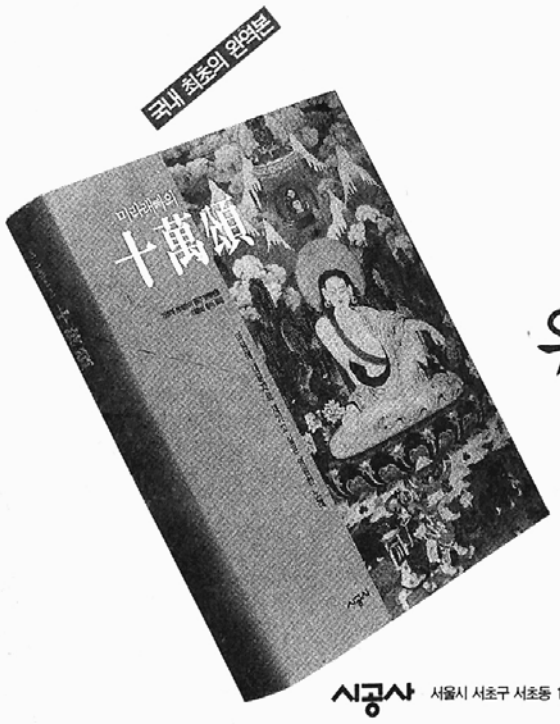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마음에 대문자로 새기고 싶은 영원한 노래

미라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의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옮김 ▪ 양장본/46배판 변형/880면/값 18,000원



위대한 스승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의 애환이 거울처럼 담긴 노래와 시집으로서
빼어난 覺者의 삶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서
다함없는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경전으로서
삶의 푯대가 되어 줄 헌신과 수행의 지침서로서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고 싶은 고전 중의 고전.

티벳 불교의 정수를 맛보게 할 고전 중의 고전

곡절 많은 운명을 딛치고 나아가
동굴 속에서 '들쥐나 산새'처럼 살아가며
깨달음을 구한 지 10년.
마침내 궁극의 진리에 몸담게 된 미라래빠!
세속과 천상, 지혜와 방편이 둘이 아닌 큰 깨달음을
춤과 노래로써 전파한 티벳의 성자 미라래빠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가르침들—
그동안 신비에 싸여 있던 티벳 불교의 정수를
이제야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티벳에는 두 가지 密書가 전해오고 있으니, 죽은 자의 갈 길을 편안케 하기 위한 〈死者의 書〉가 그 하나요, 살아 있는 자의 成佛을 위한 〈미라래빠의 十萬頌〉이 그 하나입니다.

佛經과 佛書 편찬에 투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우리말 교정·교열에 능한, 편집 경력 3년 이상 되신 분.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3월 20일까지
시공사 편집부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시공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1 전화 588-0831~4/팩스 588-0835

우리곁에 다시오신 성철 큰 스님

5부작 비디오 나왔다

생애·사상·육성법문 일목요연하게 다뤄
중도·윤회·선사상등 컴퓨터그래픽 처리

성철(性徹)스님의 생애와 사상, 유물과 육성법문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담은 5부작 비디오 테잎 「우리 곁에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이 나왔다.

백련문도회가 기획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총 8시간 25분 분량이다. 2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93년 11월 성철스님 열반 직후부터 12개월간 촬영하고 4개월간의 편집 작업을 거쳤다.

이 다큐멘터리의 특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도 윤회 선사상등을 입체적인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했으며 크로마키를 이용한 특수화면 합성으로 화면의 역동성을 살린점등이 꼽힌다. 또 생가터와 수행처 해인사 일대는 헬기를 동원 항공촬영까지 시도해 입체감이 넘친다.

또한 이 5부작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성철스님을 새롭게 조명해 내기도 했다. 출가동기가 병으로 인한 것이란 통설을 뒤엎었다거나 스님의 사상에 대한 오해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도 제시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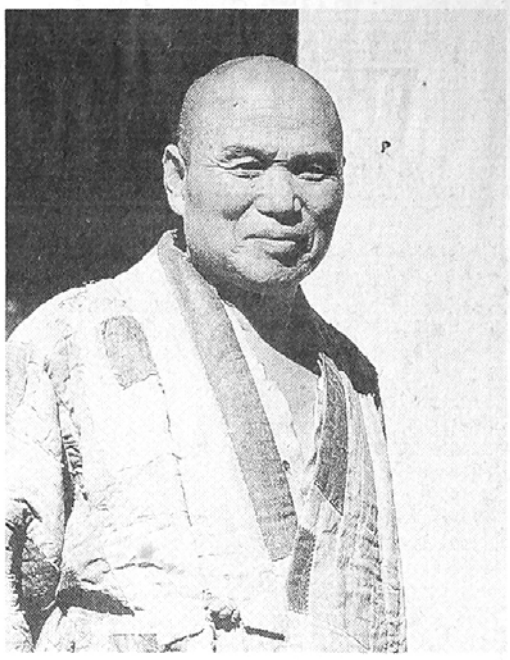
특히 이번 작업과정에서 성철스님과 관련된 미공개 영상자료, 각종문서, 사진자료등도 밝혀져 10여년전의 종정취임식 장면, 산책모습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성철스님 입적당시 화제를 모았던 친딸 불필스님과의 인터뷰와 스님의 막내 동생인 이옥선씨와의 인터뷰도 담았다.

작가 송인선씨의 글을 김도현, 송두석, 김종성 이완호씨등 정상급 나레이터들이 해설한 이 5부작 다큐는 성철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유물은 물론 생애 사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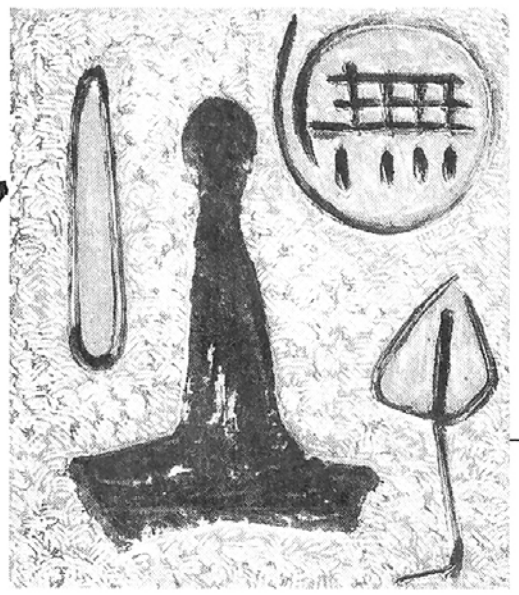
5부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편 「해탈의 길을 따라」 탄생,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성철스님의 수행 발자취 ▲2편 「가야산 호랑이」 수행자로서의 수도자세와 정신 ▲3편 「붉은 한 수레바퀴」 한국 불교에 남긴 성철스님의 업적 ▲4편 「사바세계가 극락이니」 이 사회에 던진 성철스님의 가르침 ▲5편 「내 말에 속지마라」 직접 보고 듣는 성철스님의 육성법문.

백련문도회는 오는 15일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 할 예정이다(가격:1십간원, 주문처:733-4277).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성철스님의 사리탑 건립을 위해 쓸 계획이다. 백련문도회는 또 이번에 제작된 「우리곁에…」를 영어와 일어로도 꾸며 제작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성철스님



◇임효作 도부조 「반야심-호」

판화미술제 25일 '팡파르'

해인사 화엄변상도 80점 공개
임효 도부조 반야심 시리즈도

미술의 해 기념 제1회 서울판화미술제가 오는 25일부터 4월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현대 작가의 판화와 우리나라 옛판화 2백여점이 함께 소개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80점 규모의 해인사 화엄변상도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51개 업체와 외국 8개 판화 공방이 출품하는 이번 전시에는 불교적 소재를 도부조 기법으로 제작, 판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임효씨의 작품 '반야심' '사리자' 등도 소개된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도부조판으로 형상화 시킨 임효씨의 작품은 도자기 판으로 구운 것과 그위에 한지를 덮어 찍은 후 채색을 한 것으로 독특한 질감과 색감이 작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준다.

이번 판화미술제는 서울에 이어 4월11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예술문화회관에서도 이어진다.

김교각스님 궤적담은 다큐멘터리 출시



◇구화산 육신보전의 김교각상

중국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칭송되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金喬覺)스님의 궤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2부작 비디오 테잎으로 제작됐다.

삼보영화제작소와 중국국제방송국이 합작으로 만든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은 김행수 감독이 김교각스님의 유적을 중심으로 역었다. 〈송고승전〉 〈중국불교안휘명찰구화〉 〈구화산지〉등의 문헌 자료를 토대로 주로 구화산 지역을 소개하며 김교각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고 있다. 1부와 2부 각각 51분 분량이다.

작년 9월부터 촬영에 돌입 편집까지의 과정을 마친 이 테잎은 지난 9일부터 시중에 출시됐다. (구입문의:233-2830)

제작팀은 이 다큐물의 제작에 앞서 작년 10월17일 김교각스님의 등신불이 봉안된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인덕 방장의 주관으로 한국의 흙을 덮는 봉토식도 가졌다. "이번에 출시된 이 테잎의 판매 수익금 전부는 김교각 스님의 알대기를 그리는 영화 '지장보살'의 제작비로 쓰이게 됩니다" 김행수 감독은 영화 '지장보살'의 제작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지만 자금 조달이 넉넉치 않아 먼저 다큐멘터리를 제작 했다고 밝히며 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둔 상태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계획하지 못했다고.

불심시심 〈14〉

꽃 동네 사람들

泥爲青石髓 (니위청석수) 진흙은 푸른 바위 속 뼈
松作老龍鱗 (송작로용린) 소나무 늙은 용의 비늘
犬吠白雲隔 (견폐백운격) 개의 짖음도 구름에 막힌
桃花洞裡人 (도화동리인) 복사꽃 속 동네 사람들

서산대사가 화개동(花開洞)에서 지은 시이다. 동네 이름에 걸맞도록 꽃으로 덮여 있는 동네인 것 같다.

이 시는 전편이 선시의 수사적 특징으로 어우러져 있다 하겠다. 곧 선시의 수사적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일상성을 뒤집으면서도 진리와 합쳐짐'(反常合道)이다. 이 시는 이러한 특징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흙에 돌이 물혀 있어 흙이 살이요 돌이 뼈라면 상식으로 이해될 터인데 여기서는 흙이 뼈라 하였으니 돌이 오히려 살이 된 셈이다. 일상적 논리의 뒤집음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네 주위가 모두 암벽으로 둘렸으니 그 속의 흙은 뼈처럼 가렸다. 흙이 돌의 뼈일 수 밖에 없으니 바로 일상을 뒤엎으면서도 현실의 진실에 접했다.

낙락장송의 소나무, 그 외피의 얽음은 수많은 연륜을 나타내면서 늙은 용의 비늘처럼 거룩하다. 이 거룩함 속에 지나온 무한의 세월이 있다 하지만 그 무한의 세월은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찰나 속에 갈무리된 현실 그대로다. 찰나에서 영겁을 보고, 영겁이 바로 찰나임을 의식하는 그야말로 시무애의 자세라하겠다.

개 짖는 소리로 보아 틀림없이 인가가 있을 터인데 보이지 않는다. 왜그럴까. 구름에 가려서이다. 개의 짖음은 분명 떠들석함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조용함이다. 이 조용함을 위하여 백운으로 가려놓았다. 곧 동중정(動中靜)이 되고 말았다. 이 또한 반상합도의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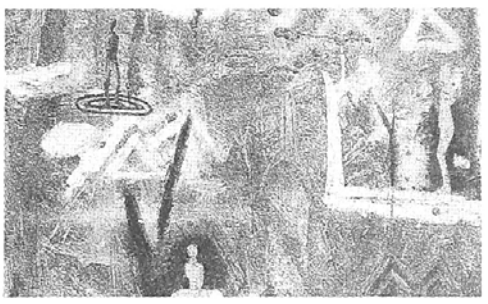
결국은 다시 이것을 뒤집어 놓는다. 복사꽃은 부동이고 그 동네의 사람은 동이다. 이것이 어우러졌으니 정중동인 셈이다. 꽃과 사람이 하나되어 동과 정이 어울렸으니, 꽃을 사람이라 해야하나 사람을 꽃이라 해야 하나.아무래도 좋다. 이 유정물과 무정물의 합일 이것이 바로 선경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문화계소식

현대불교문학상 제정

불교문학포교원(원장 해관) 산하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가 '현대불교문학상'과 '현대불교문학 신인상'을 제정했다. 금년부터 시행할 이 상은 현대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상금은 각각 2백만원과 30만원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승려시인 오현스님이 위촉됐다.



◇최영문作 「무상」

'불교미술연구' 창간호 발간

동국대 불교미술 硏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학술논문집 〈불교미술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 논문집은 최근 발간된 동연구소 최초의 학술조사보고서 〈마이산석탑연구〉와 함께 1년여에 걸친 연구업적을 결산하는 성과물의 하나이다.

이번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광덕사 묘법연화경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의 연구/문명대·박도화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상에 대한 고찰; 후삼국시대 조각의 일례/최성은 △조선중기 불전건축 내부공간의 장엄/이강근 △토벽화(土壁畵) 보존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문명대·김경미 △소조불상의 제조기법/이상배 △신라불교조각의 미의식/이순자 등 6편이다.

월간 '금관가야' 복간

월간 〈금관가야〉가 2년만에 복간됐다.

지난 90년 7월 창간 후 93년 9월까지 발행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휴간, 2년간은 공백을 깨고 3월호로 새로 복간된 〈금관가야〉는 문서포교의 기치 아래 경남지역의 환경, 교통, 청소년 문제, 지역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간된 3월호에서는 환경과 청소년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사람살이' 주제로 최영문씨 개인전

24~30일·전북예술회관

인간을 자연속으로 귀의시킴으로써 조화와 평등을 유지하며 고향 회기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질박한 언어들이 가장 한국적인 멋으로 표현된 그림들.

최영문씨의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장수고 교사인 최씨가 이번 전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살이'다. 혼합재료를 이용한 회화와 설치작품들이 불교를 포함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소박한 질감과 갈색 계통의 색감을 동원해 전해준다. 최씨의 세번째 개인전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인사동 서경갤러리에서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불교전문책방
여시아문 737-0695

인터뷰

불교춤 '허주' 구상
무용가 국 수 호씨



5월 '12인전' 무대에 올려…내년 '神曲' 발표

"오체투지 춤으로 승화할 터"

"작년 티벳을 여행하면서 모든 예술시각은 종교로부터 발원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티벳인들이 행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신행모습에서 부처님을 향해 정진하는 허허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종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국수호씨는 「허주(虛舟)」라는 작품 구상에 몰두해있다.

오는 5월 '춤작가 12인전'에 내놓을 작품으로 관짝기에 들어간 「허주」는 티벳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종교적 영감을 바탕으로 짜여진다.

"티벳인들의 오체투지는 내면의 욕심을 버리려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주」라는 작품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의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20년전 송암스님에게서 '불교의식의 무'를 전수받아 전통불교 무용가로도 알려진 국씨는 이번 작품에서 공(空)과 윤회 사상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 신앙심의 깊이를 맘껏 표출해 낼 작정이다.

국수호씨는 불교사상이 용해된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있다. 88년에는 이차돈의 순교를 그린 〈하얀초상〉을 발표했고, 내년에는 무교, 불교, 유교를 명백히 대비시키는 〈신곡(神曲)〉도 발표할 계획이다. 〈필〉

수미행산
전화 代(02) 720-3241

태국·미얀마 (7박 8일)
W 140만원
• 4월 6일~13일 • 5월 8일~15일
• 6월 3일~10일 • 7월 3일~10일
• 8월 1일~ 8일 • 9월11일~18일
• 10월 9일~16일

싱가폴·보르부둘 (5박 6일)
W 90만원
• 4월13일~18일 • 5월11일~16일
• 6월 8일~13일 • 7월13일~18일
• 8월10일~15일 • 9월14일~19일
• 10월12일~17일

태국사찰 순례 (5박 6일)
W 60만원
• 3월25일~30일 • 4월24일~29일
• 5월26일~31일 • 6월23일~28일
• 7월22일~27일 • 8월21일~26일
• 9월19일~24일 • 10월20일~25일

동남아·인도·중국·일본 성지순례

태국·미얀마사찰순례(7박8일)
동참금:140만원

지 역	일 정 진 행 내 역
서 울	10:30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앞 집결
방 콕	서울 출발. 방콕 돈무앙 공항 경유
앙 곤	미얀마 양곤 도착
양곤 파간	양곤 출발. 파간 도착후 유적지 순례 (아난다사원, 탓빈유사원, 쉐지곤파고다, 미누허사원 틸 로민로사원 등)
파 간 만달레이	만달레이 도착후 성지 순례 (쿠소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 힐 등 불교 유적)
만달레이 양곤	만달레이 출발, 양곤 도착후 페구 유적지 순례 (쉐달리옹, 짜익뿐 등 베고의 유적지) 양곤 귀환 후 휴식
양 곤 방 콕	양곤 시내관광(쉐다곤대탑, 끼비여사원 등)양곤 출발 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방 콕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등)
방 콕	오전:태국 민속촌 '또즈가든'관람 오후:방콕 시내관광(황금불사원 등)
방 콕 서 울	방콕 출발 서울 김포공항 도착후 해산

싱가폴·보르부둘사찰순례(5박6일)
동참금:90만원

지 역	일 정 진 행 내 역
서 울 싱 가 폴	김포공항 제1(구)청사 2층 신한은행 앞 집합 서울출발 싱가폴 도착후 호텔 투숙
싱 가 폴 족자카르타	싱가폴 출발 자카르타 경유 족자카르타 도착 보르부둘 사원(세계7대 불가사이) 순례
족자카르타 발 리	족자카르타 출발 발리 도착후 해변에서 휴식
발 리 싱 가 폴	힌두사원, 원숭이 사원 등 관광 발리 출발 싱가폴 도착후 호텔 투숙
싱 가 폴	국립식물원, 머라이언 공원, 쥬롱새 공원, 쉐버산장, 센토사섬 등 시내관광
싱 가 폴 서 울	싱가폴 출발 서울 도착후 해산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일본 5일	오사까-나리-교또	95만원
일본 6일	동경-나리-교또-오사키	135만원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만원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르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만원
(7박8일)태국,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리다푸리-하바리나-캔디-방콕	125만원

태국사찰순례(5박6일)
동참금:60만원

지 역	일 정 진 행 내 역
서 울 방 콕	김포공항 신청사(2청사)2층 외환은행앞 모임 서울출발. 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방 콕 파 타 야	피타이로 이동 안씽외리람사원 참배후 투숙
파 타 야	농녹빌리지에서 민속쇼 코끼리쇼 관람. 정원산책, 산호섬 일주 및 휴양
파 타 야 방 콕	방콕으로 이동후 시내관광 (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사 등)
방 콕 이 유 타 야	이유타이로 이동 이유타이 옛 고적지 참배후 방콕으로 귀환
방 콕 서 울	방콕 출발 서울 도착후 해산

※중국 여행 문의 받습니다.

국외 여행업 등록 제358호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 (02)720-3241~7 / 팩스 : (02)720-3248

불교방송 사태 배경과 일지



◇ 부천석왕사 신도 50여명이 지난 5일 불교방송을 항의방문, PD협성명의 발표경위를 듣고 있다.

교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교방송 사태는 지난달 24일 불교방송PD협회가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에 경고한다」 제하의 성명을 생방송으로 방송함으로써 불붙었다. 불교방송PD협회의 성명서 발표배경과 24일 이후 교계의 잇따른 항의등을 일지식으로 정리해 본다.

"괴문서 운운" 방송

△2월 15일 불교기자협회가 「불교방송 신문창간에 대한 불기협의 입장」을 밝혔다.

△2월 16일 조계종 임시종회와 때맞추어 「불교방송국 정상화 방안」이란 문건이 불교방송국에 입수됐다. 이 문건은 종회 안건상정 자료였으나 불교방송은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괴문서」로 규정했다.

△2월24일, 오후 5시10분~6시까지 방송되는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영준PD가 「불교방송을 음해… 」 제하의 성명을 생방송으로 방송했다. 이 성명에는 종회 자료 '불교방송국 정상화방안'을 괴문서로 지목했으며 '불면수심(佛面獸心)' '고스톱으로 삼보정재를 탕진하는' 등의 삼보비방 문구가 들어있었다.

잇따른 교계 항의

△2월1일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성명을 발표, 2월24일의 성명 생방송은 언어폭력이라 규정하고 공명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2월5일 부천 석왕사 신도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불교방송국의 자정·개혁을 촉구하며 종단특위구성도 요구했다.

같은날 석왕사 신도 50여명이 불교방송을 항의 방문했다.

△2월5일 동국대석립동문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석립동문회는 성명을 통해 '불교방송 신문창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성명서 방송 관련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대응

△3월4일 총무원이 불교방송에 '관련자 최고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월6일 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불교방송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명진스님 간사에 지만스님, 위원에 각현, 여연, 진관스님이 위촉됐다.

△3월7일 불교방송대책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PD협의 성명서와 불교방송국의 운영실태등을 검토, '강경한 대응'에 의견을 모았다. 3월 정기종회에 상정키 위한 각종 자료및 비리사례도 수집키로 했다.

△3월10일 소위원회가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 포교위워장 제원스님, 기획실의실장 종훈스님 등을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을 들었다.

불교방송 사과표명

△3월7일 오후 5시40분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2월24일 성명서 생방송과 관련 사과방송을 했다. 불교방송 PD협회는 사과방송에서 "성명서는 청정하신 스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불자로서의 자세에서 조금도 벗어난 입장이 아니었다"며 "갑자기 저희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방송을 전파에 실어 청취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을 방송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한다"고 표명했다.

문체부 종교재산 보호 안내서 발간

사례별 질의응답 집도… 교육실시·종교 신문고 운영

문화체육부는 각종 종교단체가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종교재산보호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서를 지난 6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각종 법률에서 종교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과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도표참조).

이와 함께 종교재산이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 법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근 개선된 내용과 현행 세법에서 종교재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종교보호 재산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과 사찰·불당 등 의식을 행하는 건축물, 사찰건축부지, 주차장, 의식용품, 예배용품이 적용된다.

이들재산은 현행세법상 △재산 압류금지 △기부금 손비처리 △관세감면 혜택과 △법인세, 특별부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상속세가 면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과세유예기간을 연장케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법인아닌 종교단체도 고유번호를 가지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한 바 있다.

문화체육부는 앞으로 종교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재산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례별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종교재산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분	개 선 내 용	과 거
■과세유예기간 연장 ·취득세 등록세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증여세	토지취득후 3년 토지취득후 3년 토지취득후 3년 종교단체 출연재산 사용 기간 3년	토지취득후 1년 토지취득후 1년 토지취득후 2년 종교단체 출연재산 사용기간 2년
■비과세 범위 확대 ·보전임지내 종교시설 주변 임야의 토지초과 이득세 ·경외 시택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경외 주차장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종교상 헌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종교단체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의 재출연시 증여세	개별 종교단체도 비과세 성직자는 면제 (성직자 범위는 별도고시) 경외 300m까지 허용 면제 면제	종교법인에 한해 비과세 담임목사만 면제 경내에만 인정 불특정 다수인 출연재산 추징 과세
■법인격 없는 종교 단체도 세법상 법인 적용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상 법인 적용	법인격 있는 단체만 세법상 법인 적용
■종교 단체 금융거래	법인격 없는 종교 단체에 고유 번호 부여	법인에 한해 고유번호 부여

종교에 대한 민원 제언, 정책건의등을 수렴키위한 종교신문고(이용전화 02-720-1994)를 운영중이다.

〈김원우 기자〉

2차대전 희생동포 영가천도재 봉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광복 50주년 해외 희생동포 영가천도재'를 관·싸이판 등지에서 봉행한다.

종단 대표스님과 국회정각회장 권익현의원을 비롯 80여명이 동참하게 될 이번 법회에는 2차 세계대전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 했다.

제5회 졸업식 봉행

진각대학 지난 14일

진각종 진각대학(학장 도흔)은 지난 14일 통리원장 및 신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5회 졸업식을 총인원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25명이 졸업하는 이날 졸업식에서 정재운씨가 총인상, 김우식씨가 학장상, 김봉갑씨가 통리원장상을 각각 수여받았다.

수덕사 성지순례

백련장학회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법사)는 21일 창립5주년 기념 수덕사 성지순례를 갖는다.

또 25일부터 30일까지 대전생활불교회관에서 장학기금조성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시회에는 월하종정스님, 수덕사 원담스님, 서경보스님, 승산스님의 서예작품과 산전 아천선생의 그림 등이 전시된다.

회장단 단합법회

천태종 중앙청년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창립 24주년 전국청년회장단 단합법회'를 속리산 파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전국 1백50여명의 회장단이 동참하게 될 이번 단합법회는 종정 김도용스님 및 전국청년회장단의 상견례와 함께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서 환경운동을 펼친다.

서의현 BBS이사 지분포기 촉구

전승련·실천승가회 "개혁불사 역행"

지난 2일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각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 "서환룡(의현스님 속명)이 개인 재산을 불교방송에 출자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개혁불사의 의지를 짓밟는 행위"라고 단정짓고 "불교방송 이사회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실천불교승가회 공동회장 지선 청화도 지난 1일 "불교방송 이사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제하의 성명을 내고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불교도에게 사과하라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서 전원장을 조건없이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이 성명에서 서 전원장은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공개하고 이사추천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불교방송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중앙종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불교방송 이사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승가대학 사회문제硏 창립

중앙승가대학 부설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스님) 창립법회가 지난 6일 정진관 대강당에서 학장 송산스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 종회의원 효림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불교적 이상사회' 주제 워크샵

진월스님 '한국에서 본 대승불교…' 발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응카악의 왕사닛 아쉬람에서는 '불교적 이상사회(The Dhammic Society)'를 주제로 한 워크샵이 열렸다.

사회참여불자국제연합(INEB) 연차총회에 앞서 그 비젼을 마련키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북미, 호주 등 18개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성직자, 학자, 사회활동가들이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지론을 폈다.

해외통신

일본서 '경불단展' 개최

전통적 공예품의 메카로 불리워지는 일본 경도에서 2월 10일부터 3일간 경도부불구협동조합 주최로 〈경불단·경불구전〉이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30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전통적 공예불단·불구의 이해를 돕기위한 목적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염화실탐방(11일 13:30~14:20)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서옹스님과의 대담을 통해 구도의 길과 원로로서의 몸가짐과 생활지침을 들려준다.

장성 백양사 주변의 스케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운데 서옹스님은 부처마음을 개발하여 인류는 둘이아닌 하나라는 인식하에 참세계를 열자는 법문과 교훈을 덕담으로 들려준다.

한국의명찰(13일 11:10~12:00)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웠던 표충사당이 있는 표충사.

수려하고 아름다운 영상구성으로 표충사의 역사와 고승들의 발자취를 찾아 본다.

실크로드(13일~16일 12:30~13:20)
1928년 서안으로 바뀐 현재의 모습과 최근에 출토된 유적들을 더듬어 본다.

세계 최초로 촬영한 1979년 당시의 진시황의 무덤과 만리장성, 세계 최대규모의 측천무후의 묘 등 귀중한 유물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자비의 천수천안(14일 11:10~12:00)
10년동안 폐렴과 중풍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온 아버지는 끝내 방송중 눈을 감고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는다.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임상민군의 모습을 통해 고민과 생활을 함께하며 학업중단의 기로에 서있는 임상민군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자비실천 방안을 모색.

BBS

님의 길을 따라서(8일~15일 16:40~17:00)
부처님 생애의 주요사건들을 입체낭독으로 들려주고 부처님이 이땅에 와서 열반에 들때까지를 팔상도로 나눠 방송한다.

8일 도솔래의 상/ 9일 비람강생상/ 10일 사문유관상/ 11일 유성출가상/ 12일 설산수도상/ 13일 수하항마상/ 14일 녹원전법상/ 15일 쌍림열반상이 방송되며 아동문학가 신현득씨가 팔상도의 문화적 가치와 교리적가치를 이야기한다.

절대평화로서의 열반(15일 10:05~10:55)
고은선생의 열반절 특집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현대불교신문이 미련한 문화강좌의 강연을 다시 들어본다.

불교는 길의 종교이다. 어디에 고정되지않고 어디론가 떠나야하는 종교이다. 부처님은 길에서 나고 길에서 깨달으며 길에서 전법하고 길에서 열반에 들었다. 길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

세계로 가는 음악여행(12일 22:00~22:55)
발리의 전통민속음악은 가멜란이다. 음의 고저가 없는 평상심의 경지를 느끼게끔하는 가멜란에 천천히 빠져들게 한다.

여행가 손효원씨가 출연하여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악, 민속, 탑, 풍물음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수를 나누는 것이 관례이지만 왼손은 절대금물.

방송 단신

불교TV 제2차 주식공모

불교텔레비전(대표 태응스님)은 오는 20일부터 제2차 불자주식을 공모한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9일 2천5백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규회관에서 제1차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수권자본을 법정한도 납입자본금의 4배인 1천1백1십만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이로서 2차주식공모는 6월 20일까지 3달간 2백억원의 청약금을 모금하고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최소청약단위를 20주(10만원)로 상향조정했으며 1주당 5천원으로 2만주(1억원)까지 청약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프로그램 개선 논의

불교방송 포교위원회(위원장 제원스님)는 7일 오전 11시 12명의 포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5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개선부분을 논의하고 인력보충과 주인의식 확립방안 등을 방송국측에 건의키로 했다.

'카루나' 제작 발표회

불교영화 '카루나' 제작발표회가 지난 10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이일묵감독을 비롯하여 옥소리등 주연급 배우들의 인사와 ENG 헌팅필름시사회가 있었다.

방송분회장 구태서씨

불교방송노조부 구태서차장이 6일 한국기자협회 불교방송분회 제7대분회장에 선출됐다.

관음손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기관인 당연구원에서 보증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氣 게르마늄(Ge-32)의 효과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청년불자, 선거·환경 파수역할

지자제 앞두고 위상강화…조직재정비 박차

청년불자들이 활동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앞둔 청년불자들은 자체 조직을 강화시키며 공명선거, 환경운동의 파수꾼으로 나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중앙, 지구, 지회의 행정체제를 개선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6월 지자제 선거와 운영에 따른 포럼을 개최, 조직사업에 기초한 포교사업을 추진한다.

대불청은 최우선적으로 조직강화를 위한 연계망 구축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불청은 기존 조직의 수평·수직적인 관리를 위한 전국불교청년대회, 정기법회 및 각종 사업 운영에 교육강사지원 회원 배가운동, 진각종청년회 등과의 통합내지 연대구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에 돌입했다.

대불청이 4월 1일 개최하는 '불교와 지자제 정책' 포럼은 자체조직의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사회 운동의 지휘그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불청은 조직강화에 비례해 포교사업과 문화사업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구별로 기초교리강좌를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는 포교사업은 대불청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초심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불청 청년불자들은 기초교리강좌의 정기순회 교육을 병행해 중앙과 지국, 지국과 지부, 지부와 지회의 다채널 연계망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불청은 숙원사업인 만해회관건립에 '1인 벽돌쌓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지구의 경우 교육시스템이 자생적으로 형성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임들은 일반사회학 경제학 회원관리론 등 폭넓은 이론과 실무경험의 의견교환을 통해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조직의 결속력을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지구는 환경보호단체를 결성,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내의 청년불자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편, 대구지구는 동화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사설사암연합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내부역량을 다지는 한편 공명선거 감시단 발족 등 사회사업에도 분주하다. 또한 진각종의 대한밀교청년회(회장 박희택)는 지속사업인 '청정국토 가꾸기운동'을 통해 환경보전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필선 기자〉



◇감로심장회는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을 통해 정밀검사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회복시까지 치료를 맡고 있다.

감로심장회 무료수술 1백명 넘어

환자 후원사업·농어촌 순회검진등 '열심'

(사)감로심장회(회장 정일스님)가 설립 5주년을 맞으며 무료수술 1백인을 넘어섰다.

지난 89년 이미미씨의 심장관막증 수술모금 운동 전개를 계기로 설립된 감로심장회는 불타의 자비정신을 본받아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무료시술을 주선하여 재활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그 뜻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감로심장회는 심장병 환자 무료 수술외에도 심장병예방 홍보사업 및 회지발간, 심장병 환자 후원사업, 농어촌 순회 무료 검진사업, 헌혈 지원사업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박순자씨(54·경남 산청군 시천면)를 수술함으로써 무료수술 1백회를 넘어선 감로심장회는 현재 1백6명째를 무료수술하는 한편 그동안 9차례에 걸친 벽지 농·어촌 순회를 통해 4천7백여명을 무료검진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4월말까지 진주시 삼천포시를 포함한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의 무료검진을 비롯, 5월과 진주시 개천예술제 기간동안 헌혈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감로심장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남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백여 수술자,지역·단체기관장,지역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5주년 기념법회 및 개심수술 100회 특집'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우〉

재야·시민단체협 출범

내달 1일…창립준비위원장 법타스님

교육, 문화, 통일, 경제, 공해, 언론, 사회복지 등에서 대사회적인 불교활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가칭)'불교시민단체협의회(이하 불민협)'가 오는 4월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불민협은 지난 8일 오후 7시 녹수청산에서 '대표자 및 실무자 확대회의'를 열어 창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에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불민협은 덕심스님(공추불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 4인의 창립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창립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창립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불민협에 참가한 단체는 평불협, 경불련, 공추불,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자비의 전화, 불교 간병인협회, 보리방송 모니터모임, 한마음 불자후원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등 모두 9개 단체다.

공선협 6일 발대

평불협·경불련 등 동참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불협과 경불련등 4백여 시민단체가 연대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대표 송월주 강문규 이세중)가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고장 주인정신 공명선거로 꽃피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공선협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1대1 감시운동'을 펼치게 되며,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 관람료 하반기 인상

대통령 개선안 재가…물가상승 범위내

사유문화재 관람료 개선안을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최종 재가함에 따라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8일 조계종총무원에 문화재관람료의 자율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사찰관람료의 자율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률 30%로 적용되던 예치금 의무비율의 차등 부과 △관람료 결정 자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조계종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대책위(위원장 시현)는 지난달 20일 관람료징수 사찰로부터 관람료조정 등 현안문제를 위임받음에 따라 문화재관리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예치금 의무비율과 관람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쇄신위의 사유문화재 관련제도 개선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을 상반기중 개정한다.

조계종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 주최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각 교구말사 주지 연수회 실시 △학인 이동질서 확립 △지방승가대 학제개편 및 교육개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이다.

대불련 법사과정 출범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법사과정 출범식을 혜화동 원효정사에서 갖는다.

중국연변 문화관 건립키로

재가회의 민족동질성 회복차원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는 지난 3일 운영·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금년 당면사업으로 중국 연변에 문화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 기획위원들은 21세기 통일시대를 앞두고 중국, 사할린 교포들과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회 추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재가회의가 추진하는 연변문화원은 민족적 문화유산, 겨레의 정신, 남한의 생활문화를 소상히 소개하는 각종분야의 성인 아동용 도서를 현지에 공급해 독서운동을 펼치는등 중국동포를 위한 문화공간 및 불교포교에 활용된다.

군포교 새 기틀 마련

상무대 무각사 낙성식

광주·전남지역 군불교도량인 무각사(주지법사 김영헌)가 3년간의 불사를 마치고 전남 장성의 신 상무대로 이전, 오는 16일 오전 11시 낙성식 및 봉불식 법회와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젊은 청년과 군불자들의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 될 신 상무대 무각사는 1천여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1백50여평 규모의 대웅전을 갖추고 있다. 무각사는 약사전, 종무소, 전시관, 참선실 등을 갖춘 다목적용 요사채도 완비돼 군불교 포교에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제 대비 토론회

실천승가회…오는 4월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지선·청화)는 지난 8일 승가회 사무실에서 제15차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계획 인준과 중앙위원 선정, 특별안건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실천승가회는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해 지방차치에 대한 불교도들의 관심과 대응방향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4월 서울에서 '지방화 시대의 전망과 불교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실천승가회는 2기 출범을 맞아 공등의장등을 포함한 당연직 중앙위원 20여명과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을 비롯한 선출직 중앙위원 60여명등 모두 83명의 중앙위원을 확정했다.

조계종 제8기행자교육

조계종 제8기 행자교육원 개원고불식이 지난 8일 오전 7시 통도사에서 봉행됐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자교육에는 조계종 직할교구를 비롯 전국 24개 본사에서 총 240명의 행자가 습의실수와 함께 사미(니)율의, 초발심 자경문, 보현행원품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비구니 수행관 낙성식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비구니수행관(사감 본각스님)이 오는 22일 10시 낙성식을 거행한다.

비구니 수행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학사 이전후 불교회관으로 활용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석왕사 생협 본격운영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1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연과의 공생, 사람간의 신뢰회복, 협동적인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석왕사 생협은 먹거리 공동구입·환경 생태계 보호운동·공동체 문화건설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생협은 환경운동과 우리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현실적 방법으로 운영, 앞으로 지역주민조직의 유대와 지역내 불교위상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선우' 법인추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지난 4일 장충동 사무실에서 제48차 운영위원회 및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95년도 사업안을 토의했다.

우리는 선우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캄보디아 난민 구호사업, 육사생도 교화사업, 청소년수련회 및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이번 사업안은 오는 25일 오후 4시 하림각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를 거쳐 확정 실시된다.

부산불교예술대 개학

부산불교예술대학(학장 정덕자)은 지난 10일 개학식을 갖고 불교예술을 이어갈 후학양성을 시작했다.

불교전통예술의 연구와 전승발전을 도모하게 될 부산불교예술대학은 고전무용학과와 국악과를 개설, 실기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평불협 '하나로'지 복간

평불협(회장 월주스님)회지 '하나로'지가 복간됐다.

92년 2월 창간됐던 '하나로'지는 94년 평불협 필화사건으로 94년 7·8월호(통권12호)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2월 17일 공보처 정기간행물등록에 의거 3월4일자로 복간, 95년 3·4월호(통권13호)가 발행됐다.

중앙승가대 현황·발전방향 설문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은 학교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피교육자이기 이전에 스님이다'는 인식이 학내외의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승가대학 기획실과 학생회가 지난 연말 학인 및 동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승가대학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인스님들은 44.2%가 다소 불만족, 16.8%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50.6%가 나쁜편,24%가 매우 나쁘다고 답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부설기구와 부설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 41.1%가 불충분, 21.6%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62.7%가 지원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특히 재정상태의 평가에서 50.6%가 나쁜편,24%가 매우나쁘다고 응답해 학교운영의 부정적인 평가원인은 재정상태의 어려움에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이 필요(99.3%)하며 현 종단의 지원은 불만족(79.6%)한 것으로 알려났다. 학인들의 실태 설문에서 학인스님들은 학비를 은사스님(35.9%)과 법회(27.6%), 소속사찰(11%), 각종장학금(9%)등으로 조달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운영 부정적 평가

불탄일 봉축위 구성…내달 29일 연합대법회

조계종은 지난 2일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를 구성(집행위원장 범하 총무부장스님)하고 4.8 행사에 대한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며 일주일전인 4월 29일에는 봉축연합대법회가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법회후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 행렬이 실시된다.

교양대학 입학생 작년比 10%감소

95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전국 불교교양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입학생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방불교대는 지난해 1백26명이었던 입학생이 금년에는 83명, 호남지역 재가교육의 대표적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도 지난해 2백20명에서 금년 1백30명으로 감소의 현상을 보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불교교양대학 입학생이 큰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양대학 일선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생 감소의 원인을 "전문교재의 부족, 강사초빙의 한계, 학사일정의 불규칙 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제는 불자들이 단순한 교리이해나 교양습득의 차원을 벗어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의 소양함양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태동했던 불교교양대의 향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호신경전—모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옵니다!!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모셨습니다.



봉축 탄생

영험있는
만다라의 신비함과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들어 있는 비경

천불은 현세·현겁에 차례로 출현하는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서가모니불·미륵불을 위시하여 최후 르지불까지의 천불을 말하며 천불금강경은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부처님을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하여 만다라의 영험과 신비함을 갖추고 있어 이시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며 가정에 모시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소원을 이루십니다.

• 봉축특가 ₩480,000
(현금 일시불, 은행신용카드분할가능)

포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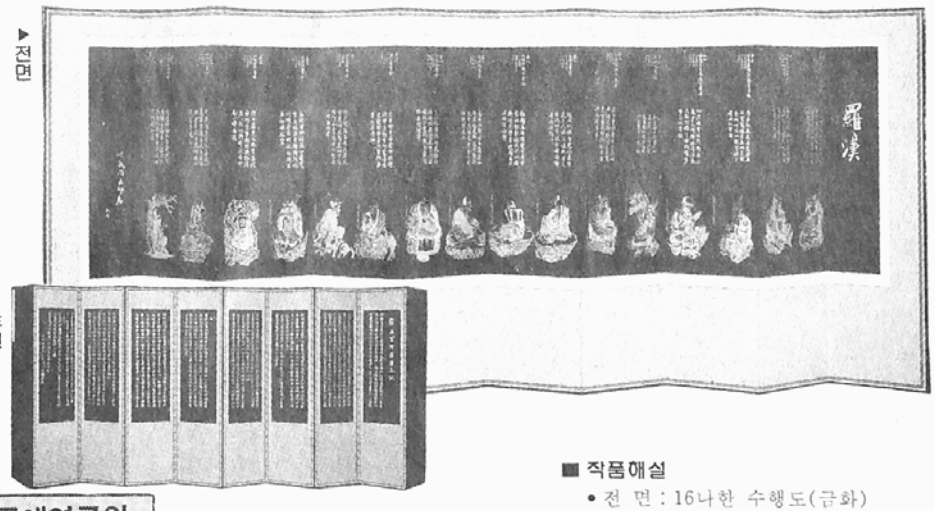
부처님 품안 우리의 미래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

영험높은 병풍———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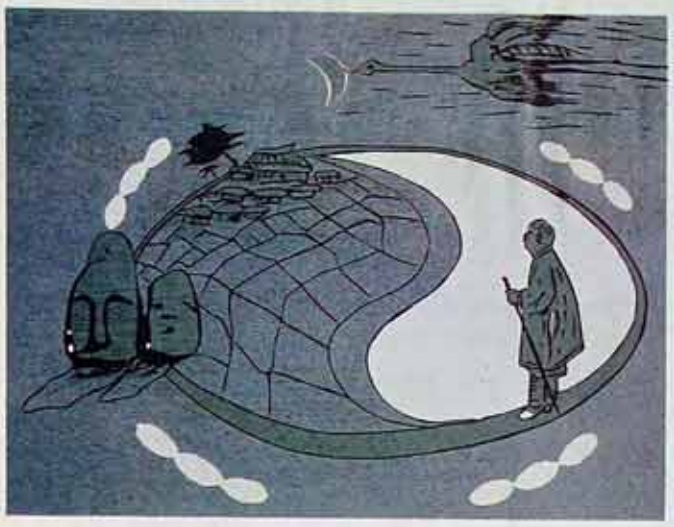
16나한도 10폭 연결 공단 병풍

큰 깨달음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탱화를 공단에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 봉축특가 : ₩420,000
■ 분할가격 : ₩460,000
인수시 ₩100,000 매월 ₩120,000×3회

■ 작품해설
• 전 면 :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 면 : 500나한본기(금시)
■ 작품규격 : 높이 5.5尺 폭 15尺
■ 표구재질 : 앞뒤 고급공단 金子書·蓋스기원목(수입재)



고향 가는 길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문득 자기 자신의 삶을 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 불교에서는 중생은 자기 한계상황(限界狀況)을 느껴야지 이 현상적(現象的)인 세계만 보면 우리 중생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인생 고해에서 헤매다가 만다고 가르치고 있다. 근본을 떠난 우리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 길인 것이다. 자급 우리는 잠시 눈 태극이 감싸고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근본자리를 찾아서 새처럼 자유스럽게 고향 가는 길을 형상화 한 그림을 말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험한 고행길을 가야 할지 자급 어디만큼 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잘못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고향 가는 나그

탐욕·고해를 건너 자유의 세계로

을 뜨고 주변을 보고 한걸음 밖을 나가도 모두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고 만다. 이성간의 욕망에 눈이 어둡고 명예나 식욕 재물에 얽매어 있다.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 모두 고향 가는 길에서 자급부터라도 자기를 성찰해 보고 자기 반추(反芻)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향 가는 길에 참다운 부모가 되고 훌륭한 스승, 총명한 사회인, 직장인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참다운 부모 스승 사회인 직장인이 될 수 없다.

내게 있어 「고향 가는 길」은 화두이다. 그래서 그 길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네일 수 밖에 없다.

이 길은 누가 대신해서 가주는 길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나 자신과 함께 가야할 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만 귀중한 생명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권력을 가지면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고향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영만 〈불교 목판화가〉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⑤·〈끝〉

주부신행담

불현듯 지난 백일기도때 만났던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곱은 허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며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던 그 할머니의 서원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내 자식들 잘되게 해 주소서'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뿐이었다.

부처님의 지비와 이 할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나약한 모습에서 나오는 가장 숭고한 사랑. 그것 역시 항상 번뇌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대자대비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어찌 허상이겠는가!

"결혼이 환상은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많고 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을 느낄때가 있을거예요." 바삐 움직이는 내 손목에 걸린 합장주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이 너무도 예뻤다.

지난해 9월 자그마한 상점을 한다는 동거부부는 이른 새벽 신부화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수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시간에 찾아온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흐뭇했다.

문득 작년 초 우리 미용실 손님이었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부부와,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잠시 귀국해 결혼식을 올린 후 다시 선교사업을 위해 아프리카로 건너간 어느 선교사 부부가 환한 얼굴로 화장거울에 비쳐졌다. 이들 모두가 처음 미용실에 찾아 왔을때만 해도 우리의 뜻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러 온 탐문군에 불과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최소 70-80만원 정도의 경비를 거저 대신해 주겠다면 이는 누군들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무료 드레스 대여와 신부화장을 받으러 오는 부부는 처음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실망감마저 들어 애초의 뜻을 갈아먹고 있었다. 우린 생각다 못해 월간 '불광'과 결혼관련 잡지에 사비를 들여 광고까지 내게 되었다. 어차피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나섰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태가 너무도 안타깝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던 포천의 고아원만해도 그랬다. 고아원 원장이 우리가 갖다 준 것들을 다시 빼앗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꺼내지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했던가. 그런 연유로 우리 미용실 식구들이 그토록 정성들여 해오던 봉사활동은 포천에서 화곡동 장애자학교로 옮겨졌다. 어차피 이곳저곳 두루 돌보아야겠다는 것이 처음의 뜻이었으니까. 장애자학교의 아이들은 포천 아이들보다 더욱 불우한 이웃이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다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지은 죄도 없이 받고 있는 그들에게 머리나 다듬어 주며 교작 몇시간 동안 함께 하는 우리의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성한 자의 광인한 축제인지도 모른다는 회책감이 지금도 나를 우울하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 아이들이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한 그들의 표정은 이따금 생활의 피로와 권태를 느끼는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곤 한다.

무료 드레스 대여와 신부화장 그리고 장애자학교 방문이라는 봉사활동은 더러는 순수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주위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다. 지하 5평짜리 단칸방에 세식구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주제에 무슨 봉사활동이냐는 부의 비아냥이다. 혹은 무슨 중공이속이 있어 그러지 않느냐는 의혹도 받는다. 때로는 속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에 안으라 하신다.

지금까지 어설픈 글과 단견으로 내가 느껴온 세상을 표현해 보았다. 물론 나보다 더 진실한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러한 글을 쓰는 내 자신에게 송구한 마음을 더하게 한다. 하지만 내게 이 글을 쓰게 한 단 한가지 이유는 부처님의 품속에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해 보자는 욕심에서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데 대한 고마움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어리석고 좁은 소견으로 부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런 나를 어여삐 여기신 부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내 신행은 모두 부처님의 뜻이며 그 속에서 나는 또 다시 부처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미용학교를 세워 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불자로 키워내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이러한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래왔듯이 부처님의 보살핌이 계속된다면 분명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삶의 행복, 그것은 분명 내 마음속에 있으며 그 마음에 항상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한 언제나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화자 (서울 종로구 홍지동)

삶의 행복은 내마음속에 있으며 내 속의 부처님은 세상 모든것을 품에 안으라고…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⑩

And how, young householder, does the Aryan disciple protect the six quarters? The following should be looked upon as the six quarters. Parents as the east, teachers as the south, wife and children as the west, friends and companions as the north, servants and employees as the nadir, recluses and brahmins as the zenith.

그러면, 젊은 장자여, 성인의 제자가 어떻게 육방을 수호하는가? 다음의 사람을 육방으로 생각하라. 부모는 동쪽, 스승은 남쪽, 아내와 자식은 서쪽, 친구와 동료는 북쪽,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방향, 수도자나 바라문은 윗방향.

A child should minister to his parents as the eastern quarter in five ways. Once I was supported by them, now I will be their support. I will perform those duties they have to perform. I will maintain the lineage and tradition of my family. I will look after my inheritance, and I will give alms on behalf of them.

자녀는 다섯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동방으로 모셔야 한다. 옛날에 내가 그분들의 부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분들의 부양자가 되리라. 그분들이 해야할 의무를 내가 다하리라. 나는 내 가족의 업풍과 전통을 유지하리라. 나는 물려받은 재산을 돌보리라. 나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보시하리라.

Parents thus ministered to by their children as the eastern quarter, show their love for them in five ways. They restrain them from evil. They direct them towards the good. They train them to a profession. They arrange suitable marrages for them, and in due time, they hand over the inheritance to them.

이렇게 동방으로 봉양받은 부모들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선으로 이끈다. 그들은 자녀를 교육시켜 전문직업을 갖게 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알맞은 혼처를 구해주며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recluse: 은둔자, 출가한 수도자
*minister: 모시다, 봉사하다, 공헌하다.

〈박미영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 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100 전통 100년, 도전 100년 1896-1996

환경관리 국내 1위
두산그룹
'94 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선정

두산그룹은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강토사랑, 지구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4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최다 선정(16개 사업장)된 두산그룹이 이 나라 제일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두산은 예방위주의 철저한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MS)〉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망라하는 환경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토 사랑, 지구 사랑 — 두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현황
두산상사 금산공장 동양맥주 서울공장, 이천공장, 광주공장, 구미공장, 경산공장 두산음료 서울공장 두산기계 범점공장
두산유리 군포공장, 영남공장 두산전자 증평공장
종합식품 이천공장, 부천공장 두산제관 광주공장
오비씨그램 이천공장 백화 군산공장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1社1山1河川 지키기운동 · 종가집 철새보호운동 · 나무 비료주기운동 · 환경책자 배포운동등 斗山의 환경보호 운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斗山